2009년 신입생을 위한 새터 자료집

들어가면서(Prologue)

1. 의과대학 학생 회장의 편지글….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2대 학생회장 신재원입니다. 고등학교과정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대학생활을 하게 된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6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함께 보낼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선배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첫 만남인 새터에서부터 동아리, 담임반, 향우회 등의 모임을 통해 수많은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본과에 오게 되면 수 년동안을 동기들과 한 교실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은 다른 과 학생들의 생활과는 제법 다릅니다. 졸업 때까지 6년이 걸리고, 공부량도 단연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과안에서의 동아리활동도 더 활발하고, 본과에 진급하게 되면 다른과와 달리 꽉 짜여진 학사일정에 의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폐쇄적일 수 있는 의과대학의 생활을 잘해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 사이의 교우관계가 중요하고, 선후배사이의 좋은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3년 정도 의과대학 생활을 해본 경험을 비추어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몇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가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많은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류는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학업으로의 부담이 적은 예과 2년을 보내게 되고, 본격적인 의과대학 공부를 하게 되는 본과 4년을 의과대학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6년이라는 시간동안 의과대학의 공부만 하고 지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악기를 해도 좋습니다, 운동만 죽어라 해도 좋습니다. 실험실에서 방학때마다 살아도 좋습니다. 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를 시작했으면, 최고가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6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쯤에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남들에게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공부만 잘하는 의대생이라는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내의 친구들은 계속 생활 하다보면 수업, 기숙사, 의대 동아리 생활 등의 같은 생활반경으로 인해서 저절로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과에서의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점점 의대밖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그나마 알던 사람들도 연락이 뚝 끊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과 2년동안 의과대학 동아리뿐만 아니라 중앙동아리 한번 해보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관계를 쌓아가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외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귀찮다고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봅시다.

크게 두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 역시 제대로 실천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본과2학년에 올라가는 동기들이 대부분 아주 동의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약 60여명의 09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은 앞으로 6년동안의 의과대학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멋진 의과대학 생활을 위하여, 화이팅.!

2. 의예과 회장 박해정 선배의 편지글

안녕하세요. 08학번 예과회장 박해정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와 선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것(?)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선배들에게 소외 받고 내년이면 본과로 가야하는 서글픈 신새에 놓여있습니다......유유......

전 작년에 신입생으로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카라카의 푸른 물결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느꼈고, 연고전의 열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연세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연세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에 가슴 속에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전 만약 ' 예과를 다니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친구들을 만난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운이 없다면 6년, 10년 아니 평생 볼 수도 있는 지긋지긋한 얼굴들이겠지만 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캠퍼스 생활이 그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또 그럴 것입니다. 전 또 신입생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긴장되기도 하고 흥분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OT, 즐거운 새내기 새로 배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목 차(Contents)

들어가면서(Prologue) ········· 2

새내기 배움터 오리엔테이션 ········· 5

1. 새내기 배움터 일정 ········· 5

2. 신나고 재미있는!!!

 새터를 즐겁게 보내자!!!(*written by* 김 응 남) ········· 6

3. 새터 조 구성 ········· 9

4. 처음(?) 접하는 술!

 - 술이 두려운 당신, 보아라!(*written by* 이 주 형) ········· 10

예과생 용어 사전(*written by* 성 민 동) ········· 15

1년동안의 주요행사 및 세부일정 소개(*written by* 안 성 재, 성 민 동) ········· 26

어디서 뭘 먹을까~?(*written by* 김 보 람) ········· 3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리 ········· 42

편집 후기(*written by* 성 민 동, 전 병 남) ········· 89

새내기 배움터 오리엔테이션

1. 새내기 배움터 일정

	첫째날(2월 20일)	둘째날(2월 21일)	마지막날(2월 22일)
9 : 00		아침식사	아침식사
10 : 00		아침체조&체육대회	정리시간
11 : 00	강의실에서 모여요		퇴소식 & 학교로
12 : 00	출발 & 이동		
13 : 00		점심식사	
14 : 00	입소식 & 방배정	촌극준비	
15 : 00	조장, 조기, 조구호, 조가 만들기		
16 : 00			
17 : 00	저녁식사	포스트 게임	
18 : 00	자유시간		
19 : 00	YCV 영상 관람	촌극 발표	
20 : 00	준비한 것 발표		
21 : 00			
22 : 00		응원 & 캠프파이어	
23 : 00			

2. 신나고 재미있는!!!
새터를 즐겁게 보내자!!!

당당하게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신 09학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에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바로~ 새터입니다!!!(두둥) 여기저기서 새터에 대해서는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무슨 입에 소주병을 꽂고 있는다는 둥 혈관의 피가 알코올로 교체된다는 둥 말도 안되는 통설이 있는데요;;;; 새터는 새로 배움터의 약자입니다. 즉 새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알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 관해 듣고 알아가는 과정이죠ㅎㅎㅎㅎ 자 그럼 이제 새터를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왠지 가야할 것 같아서., 안가면 이상해서, 새터신의 부름이 있어서, 외계인이 전자파로 유도해서....등등 어쨌든 새터에 왔다면?? 새터의 공기를 즐겨 봅시다. 새터를 즐긴다고 해서 고성방가 이런 건 안되죠~ 선배들이 고민해서 짜낸 프로그램과 여러분의 조의 분위기에 맞추어 분위기를 한층 즐겁게 고조시킨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Big star!!! 새터 분위기를 너무 꺼려하지만 않아도 얼굴이 방긋방긋 즐거운 분위기는 흐뭇흐뭇^^ 혹시 여러분이 소싯적에 꽤나 재밌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100%입니다.

2. 평생지기 만들기!!!

앞으로의 1년 아니 몇 년을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죠!! 무슨 새터 첫날부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를 만드느냐 난 원래 독고다이다 이러신 분들 NO~NO~ 필자는 비록 1년밖에 본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친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죠.... 공강시간에 혼자 과방에서 자장면이나 컵라면을 드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아 물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새터에서만 있지 않아요 하지만 첫인상이 주위 사람들의 우호성을 결정하기가 쉽죠^^ 저도 사람을 잘 대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입학 때부터 만든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답니다ㅎㅎㅎㅎ ~~/부끄/~~ 새터 방안에서 같은 조원들과 대화도 나누어보고 버스 안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맘에 드는 여학우 혹은 남학우가 있다면 이럴 때 첫대면+α도....~~

3. 刻印(각인)!!!

이번에 입학하는 09학번 여러분들은 대략 70명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기억될까요?? 아마 동기들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1년이 지나도록 말 한번 못 건네 본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암울하죠...하지만 새터를 기회삼아 자신의 인상을 많은

사람들 머리 속에 각인시켜보는 것도 좋을 거에요. 무대에서 자진 FM 강추고요 자신의 특기나 내세울만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뽐내주세요!!(그렇게 된다면 이 글을 쓰는 저는 흐므믓하겠습니다ㅎㅎㅎㅎ) 새터가 끝나고도 여러분은 사람들 머리 속에 반드시 기억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챤쓰가 될겁니다.(작년의 사례만 봐도 1학기 예1 부회장님과 현 예과 회장님 모두 새터에서 기억될 만한 분들이었죠^^)

4. 점수따기!!

그냥 엠티 같은 데 가서 점수를 많이 따면 상품을 주기도 하죠?? 새터에서 주는 상품은 술자리에서 목숨만큼 중요한 안주입니다.(물론 맛은 보장 할 수 없음...) 안주가 배분되면 냄새를 맡고 1등한 조를 찾아오는 하이에나님들도 있을 듯 합니다. 자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따느냐~ 이건 새터에서의 여러분의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새터 3일동안의 일정은 선배들의 여러 번의 회의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엘리트 놀이코스입니다. 뭐 게임도 있고 운동도 있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좋은 점수를 따는 게 중요하고 조의 이미지 지키기도 중요합니다. 모일 때 항상 늦거나 하면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새터 조 구호나 조 이름 이런 거 일단 기발할수록 좋습니다. 웃음까지 있다면 WOW!! 정말 이건 사상 유래 없는 조 이름일 것이다 이건 볼수록 웃기다 이러면 100%입니다. 그리고 매우매우 베리베리 많이많이 중요한 것은 촌극입니다. 일단 첫째 날 밤에 조 이름 조 구호 이런 걸로 점수가 결정된다면 둘째 날은 촌극입니다. 촌극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다 이야기해 드릴 거지만... 작년의 사례로 팁을 건네보고자 하면...촌극은 연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좋으면 좋고 내용이 별로여도 웃기면 최강입니다. 최대한 웃기게, 하지만 체계를 갖춘 개그 또 거기서 개그 절제의 미덕을 보이는 모습... 촌극하고 있는 나도 너무 웃겨서 못하겠다 할 정도이면 우주최강입니다.

FM(Field Manual)에 대한 조언!!

FM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시벨이 높을수록 좋은 평판을 받고 energetic하고 dynamic할수록 +(plus)점수를 받게 되요. (물론 평가는 관중들이 ...... 고로 FM을 아무리 잘해도 평소에 주변의 타겟(target)이 되었거나 관중들이 호응할 수 없는 사람들일때.... ex.연고전 이후 고대人들 주위에서 할 때...몇 번 다시 하고 처참한 결과를 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FM을 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우렁차게, 으앎으앎으안녕하십니까!!, 안녀엉~안녀엉~안녕하십니까!! 등등 dynamic한 모션을 섞어서 과격하게 응용가능.) **통일~연세!!**(역시모션을섞으면Good!!) **막강~의예!!** **^@$!&#!*@#%!*@**(대사 한마디, 웃기게 하면 좋음, 개성을 살려서... ~~잘 나가는~~ 이렇게 무난한 대사는 흥미 저조함) 09학번 X!X!X!(예를 들어 손담비라고 하면 손!(손)담!(담)비!(비)) 당차게인사드립니다!!! 이렇게하는겁니다...ㅎㅎㅎㅎㅎ 아 물론 08학번 중 한 명이 무대에서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입니다^^ㅎㅎㅎㅎㅎ

자 여기까지는 새터를 한층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팁을 드린 거고요 새터에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I. 과음 금지

대학생이 되서 많은 분들이 술을 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그래서 왼쪽 사진과 같이 처참한 상황까지 갈 우려도 있는데요.... 입학 전에 여기저기서 새터에서나 대면식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쵸큼 두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과는 선배들은 후배들어게 억지로 술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두번 후배에게 술을 권하고 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그만 두게 됩니다. 선배님들은 09학번 새내기들이 즐길 수 있는 새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의 절제도 중요해요. 내 신조는 가오만사성이라 새터와서도 술 좀 먹어줘야겠다 이런 분들!! 09학번 새터계의 전설로 남고 싶지 않으면(08학번 새터계의 전설은 있답니다ㅠ 사생활 보장 상 공개는 안 합니다만...) 주량껏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분처럼 술을 잘 드시면 모르겠죠ㅎ

술에 대한 이야기는 새터 자료집에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세요ㅎㅎㅎㅎ

II. 지시 사항 지키기

새터를 가기 전, 혹은 장소에 도착 후 예과 회장님께서 지켜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나 새터 자료집에 올라 갈 겁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거의 80명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 회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할 때는 질서를 지켜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밤에 술 마시고 밖에 함부로 나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새터 가는 곳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술 마시고 밖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ㅎㅎㅎ(날씨에 따라 얼음일 수도 있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새터 가서 즐겁게 놀 준비가 되신 겁니다. 새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입니다. 다른 새내기 여러분과 함께 새터를 활활 불태워 보아요!!!!

※ 본 글에 이용된 사진의 내용은 필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새터 조 구성

1조	극회	농구	
2조	오케스트라	세네마	
3조	합창	광혜학보	
4조	노세	미술	
5조	세스	축구	
6조	이브닝콰이어	CMF	
7조	사진	의청	야구
8조	피아노	테니스	타름

여러분들은 8개 조로 나뉘어 져서 각각의 조에 소속될 것입니다. 새터 조에 같이 소속된 인원은 약 7~8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명단을 작성 못했어요. 동아리 조 구성만 하였고. 각 조에는 각 동아리에서 온 선배님(우리는 이 분들을 '상주'라고 하지요.)들이 한 두분 함께 할거예요. 새터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고, 신입생이 거의 가장 처음 만나는 선배이니 만큼 영향도 클 겁니다. 많이 도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같은 조에 있었던 동기들이 3월 한달동안에는 가장 친한 친구일 것이예요. 동아리가 정해지면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동기들이 가장 친해지겠지만요. 물론 예외도 있답니다. 같은 조원들끼리 도와서 최강의 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4. 처음(?) 접하는 술!
- 술이 두려운 당신, 보아라!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와는 상관없이 술자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착하고 모범적으로 고등학교 3년을 보내신 대다수의 신입생 분들은 아마 본격적인 술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처음일 겁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해서 배우게 되는 술자리에서의 자세와 술 문화는, 훗날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술을 배울 때 잘못된 술버릇을 배운다거나, 자기 절제를 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후에 고치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러면 과연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남들과도 재미있게 어울려 술자리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술자리에서 오래 살아남기

(1) 가늘고 길게, 아니면 짧고 굵게?

간단히 말해서, 가늘고 길게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간이 여유를 가지고 알코올 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연이어 서너 잔 마시는 것은 보기에는 호탕해 보이지만 금방 취하게 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술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그 긴장이 해소된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진솔한 대화를 유도해내는 것인데, 정신없이 술만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버려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한 채 곯아떨어진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죠? 또한 이렇게 거나하게 취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간을 비롯한 많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답니다. 평생 함께해야 할 몸인데, 젊은 혈기로 몸을 망가뜨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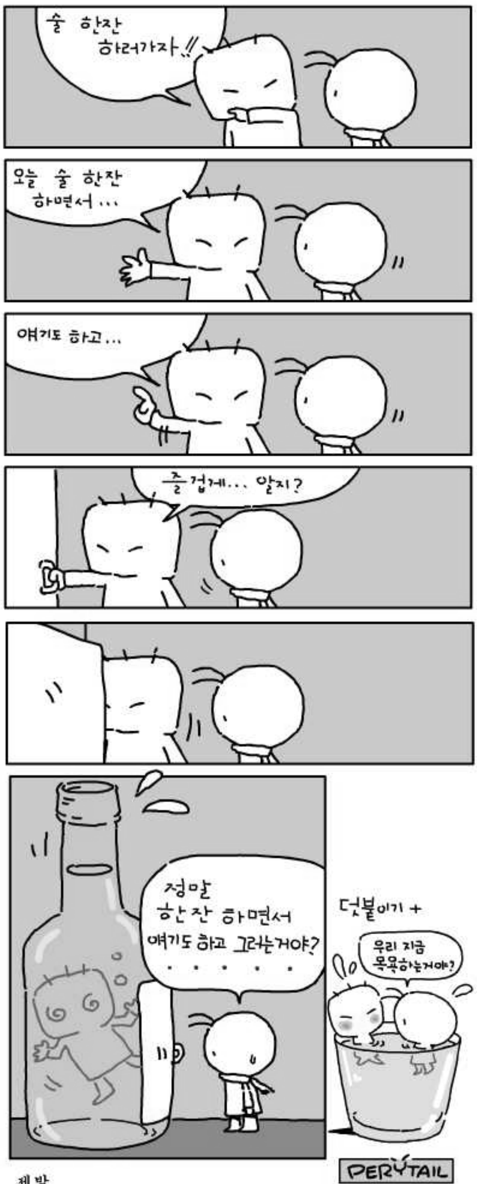
(2) 소맥, 폭탄주, 과연 바람직한 음주방법인가?

술은 그 종류에 따라 알코올의 농도, 흡수율, 대사 및 배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 마셔서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 콜라와 사이다 등을 섞어 마시는 음주습관은 몸에 해롭습니다. 탄산거품이 섞인 술은 흡수가 빨라 짧은 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더구나 '2차는 기본, 3차는 선택'식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소주, 맥주, 양주 순으로 마시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나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3) 내 주량은 도대체 얼마지?

한 사람의 주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술을 먹어야지

술에 먹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옛말도 있지만 주량은 그 사람의 그 날 신체적 상태,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의 분위기, 혹은 어떤 술을 마시고 있는가, 동석한 사람들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량이 이만큼이다 하는 저울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량을 조금 부족하게 정해 놓고, 그 이상 마시지 않는 자기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마시면 얼마만큼 취하는가, 또 어떻게 취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느 선에서 그쳐야 다음날 영향이 없는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제3자를 옆에 있게 해서 그 상황을 일일이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작가가 된 기분으로 취중일기를 쓰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술의 정신적, 육체적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체형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중이 나가는 만큼 주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수를 한다거나 다음 날 까지도 취기가 남아 있다거나 하는 일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자리에서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술의 '절대 알코올량'입니다. 같은 술 한 병이라도 알코올 량은 차이가 꽤 나지요.



제발....
술에 먹히지 마세요....

2. 술이 싫은 그대, 술자리 100배 즐기기

(1) 적당히 즐기는 것이 최고!

술을 마실 때에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마셔야지 절대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을 억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를 끝내고 2차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1시간 이상 비알코올 음료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안주가 없는 음주는 삼가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술을 마시기 전에 먹거나, 먹으면서 마셔야 합니다. 늦어도 마지막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에는 술자리를 끝내도록 해야겠죠? 과음으로 인해 간과 위장이 지쳐있는 상태에 또 술·

마시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해장술은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숙취의 고통조차 느낄 수 없게 하고 철저히 간과 위를 손상시킵니다. 일시적으로 두통과 속쓰림이 가시는 듯한 것은 마약과 다름없다. 다친 곳을 또 때리는 것과 똑같은 해장술, 마시지도 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 부디 술에 먹히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2) 술은 낭만이다.

새내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술잔과 더불어 오가는 진솔한 이야기들, 쌓여 가는 술병과 더불어 서로의 마음에도 쌓이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술의 장점들 때문에 선배들이 술을 권하는 것이지요.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들이 공식적 대학생활의 시작인 새터를 가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서로 쳐다보는 것조차 뻘쭘한 동기들과 처음 만나는 선배들일 겁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낯선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서로 불편하다면, 말 걸기가 어색하다면 잠시 후 술자리를 통해서 동기들과 친분도 쌓고 선배님들과도 가까워져 보는 게 어떨까요? 술자리가 시작되면 옆의 동기에게, 선배에게 가벼운 인사와 더불어 소주 한잔을 건네 보길 바랍니다. 한 잔 두 잔 건네다 보면 말문이 트이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느새 몰라볼 정도로 가까워져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술에 관한 상식

(1) 해장술은 치명적이다.

술 중에 가장 해로운 술이 바로 해장술입니다. 해장술은 숙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두통이나 속쓰림을 못 느끼게 할 뿐입니다.

(2) 필름은 왜 끊기는 것인가?

필름 끊기는 것의 의학용어는 'Blackout'입니다. 원래 군사용어로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급상승시킬 때 일시적으로 시각장애가 일어나는 것인데, 공습에 대비한 등화관제, 전시의 보도관제, 본격적인 핵공격에 앞서 적의 미사일기지에 미사일을 쏟아 부어

적 방공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 등을 뜻합니다.

알코올은 대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대뇌 옆 부분인 측두엽의 해마 부위에서 기억을 입력 저장 출력하는 과정 중 입력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필름 절단 사고'입니다. 의학계에선 알코올의 독소가 직접 뇌세포를 파괴하기보다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전달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겨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필름이 끊길 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술자리의 다른 사람은 필름 절단 사고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뇌가 저장된 정보를 꺼내고 사용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집에는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뇌에 기억이 아예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최면술사가 최면을 걸어도 '그 때'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 누가 필름이 잘 끊기는가?

선천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0순위'입니다. 또 술을 자주 마시면 뇌가 술에 취하는 것을 늦게 알기 때문에 만취할 가능성이 높아져 필름이 잘 끊어집니다. '술꾼' 중엔 유전적으로 필름이 안 끊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 필름이 끊기면 알코올중독?

필름이 끊긴다고 곧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때마다 필름이 끊겨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계속 술을 마신다면 알코올 중독이겠지요.

▶ 필름이 안 끊기는 묘책은?

술을 많이 마시면서 필름이 안 끊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다 일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적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평소에 엽산과 시아민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어두는 것이 중요하죠.

☻ 09학번 새내기 여러분, 새터에 오기 전에 "아 선배님들이 술 많이 먹이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슬며시 하고 온 분들도 있을거예요. 그렇지만 마시기 싫고 먹지 못하는데 억지.

먹이는 선배님들은 없어요.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정중히 거절하는 센스 아시죠? 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좁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칫 실수로 인해 사이가 벌어지는 수도 있어요. 새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올바른 새터 술 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예과생 용어 사전

예과생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과생이 되었는데 예과생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사전식으로 용어사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읽으면 많은 팁들과 알아야 할 것들

ㄱ	
개파	개강파티의 준말입니다. 개강을 하면 개강을 했다고 다들 축하해 주는 거지요. 사실 전공 수업 때는 많이 보는 얼굴들이지만, 솔직히 단체로 잘 만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이 없다면 귀찮다고 불참하지 마시고 꼭 참가해서 친목을 도모했으면 하네요. 반의어) 종파
계절	계절학기의 준말으로서 돈을 내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학 때 무슨 수업을 들어?' 라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내고 수업 듣는 사람이 은근히 많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요. 4학기동안 학점을 다 채우기 힘들어서 듣는 경우도 있고, 다음 학기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요. 연세대학교 계절학기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약 한 학점에 100,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계절학기 등록할 때 공지사항이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동의어) 계기(계절학기의 준말인 줄은 아시겠지요?) Example) 기독교는 계절이 개념이야.
과대	한 학기 동안 한 학번을 책임질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기는 한 학기이며, 중임(재임)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투표를 통한 선출이지만, 항상 원칙대로 행하여진 적은 없습니다. 예과 회장은 조금 무거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과대는 가벼운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과회장의 아래에서 그 학번을 통솔하는 일을 맡습니다. 유의어) 예과 회장 Example) 기범이 형이 2학년 과대로 선출 되었대.
금메달	시험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답안지를 가장 먼저 내고 나가는 것을 ㄹ

메달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내는 것은 은메달, 세 번째는 동메달이 되겠지요. 시험 준비를 너무나 철저히 해서 가장 빨리 풀고 나오는 것.........이면 좋겠지만 백지를 내거나 교수님께 성적에 대한 애절한 편지를 쓰고 메달을 획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누구는 금메달인데도 평균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더군요ㅠ) 만약 세 과목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3관왕이 되겠지요. 타과와 함께 듣는 교양 강의에서 우리 의예과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메달권에 들어 연세대 내에서 의예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치의예과 때문에 위상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요.

유의어) 은메달, 동메달

Example) 그 과목 중간고사 금메달부터 5등까지 다 의예과래

기숙사

예과생들이 쓸 수 있는 기숙사는 무악 3학사지요. 2인 1실이고요, 공동화장실이며, 시설 괜찮습니다. 뭐 이건 예과생들의 아지트가 되지요. 직접 들어오시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의과대학에서는 기숙사를 2개를 쓰고 있어요. 무악3학사와 제중학사라고 의대 옆에 있는게 있는데 전자는 아까 설명을 했고, 후자는 본과생들 위주로 많이 쓰이고, 시설이 무악3학사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밥이 맛있답니다.

기종

기초종합평가의 줄임말로, 본과 한 학년 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범위의 시험입니다. 시행한다고 말은 많았지만 미뤄지다가, 07학번부터는 아마 보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아 일부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mple) 정말 기종 보게 되면...본과 1년치 공부를 어떻게 한번에 본대?

ㄴ

ㄷ

담임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담임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수님들부터 예과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는 제도로서, 스승의 날이나 담임반마다 기타 행사가 있을 때 모이게 됩니다. 아마 09학번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해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저희도 그랬답니다.) 교수님 성향에 따라, 모이면 레스토랑과 와인바를 가는 럭셔리한 담임반, 중국집과 노래방을 가는 담임반 등 천차만별입니다. 일부는 표에 편성만 되어 있고 모이지 않는 담임반도 있는

데, 그런 담임반을 '죽은 담임반'이 라고 부릅니다.

예) 나 오늘 담임반 선배 결혼식이라서, 정장 입고 나가야 해.

대출

대리출석의 준말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키는 것이지요. 수업은 째고 싶고, 출석점수는 깎이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하는 스킬(?!)입니다.(syllabus(수업계획서)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F 위기도 아니고, 출석이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대출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에게 목소리만 빌릴 수도 있고, 그 수업을 안 듣는 친구를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능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야 걸리지 않습니다.(이건 꼭 내가 전문가라는 소리로 들리잖아?) 하지만, 만약 대출을 하다 교수님께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보장할 수 없으니(08학번 때 일반 생물 교수는 적발되면 5결을 날렸지요. 출F를 날린다는 소문도.....),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교수님의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과 선배님의 수업을 대출해 드리고 밥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다는군요.(접니다. 일주일간 대출 했지요ㅠ) 더 나아가 대학원 대출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경우까지!!!!!

예) 나 늦잠자서 지각할 것 같은데 대출 좀 해줘 ㅠㅠ

W

Withdraw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 W는 2008년까지만 해도 졸업해도 남는 주홍글씨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네요. W가 없어짐으로 해서 부담없이 수강철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주면에서는 학점을 종류별로 다 모으기 위해 일부러 W를 따기도 했다는 속설이..

유의어) 수강철회

ㄹ

ㅁ

마구리

말구(末ロ)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말로, 나뭇가지의 끝부분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슴 속에 품은 꿈을 펼치기 위해 매진하며, 그 꿈을 위해서라면 성적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학생들을 말합니다.^^ㅋ

ㅂ

바르다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시험 직전 답안이나 핵'

심내용을 눈에 대충 익숙히 해두었다가 시험시간에 쏟아내고 싹 잊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책을 보고 글자를 그대로 눈에 갖다 바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뭐 벼락치기의 신종 어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Example)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자버렸어ㅠㅠ 한 단원이라도 바르고 들어가야겠다ㅠㅠ

베이스

성적이 주로 바닥권에 형성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옵세와 베이스에 동시에 해당되는 슬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옵세의 반대말이 베이스가 아닌 것이지요.

유의어) 마구리
반의어) 에이스

ㅅ

삼치기

이건 기숙사 사생이 아니면 별로 쓸 일이 없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네요. 예과생이 들어갈 수 있는 무악3학사는 캠퍼스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많은 기숙사생들이 스쿠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요. 하지만 모든 기숙사생이 스쿠터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발생하는 일이 삼치기입니다. 보통 2명까지 타는 스쿠터(또는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한꺼번에 타는 것을 삼치기라고 합니다.

예) 기숙사 통금 시간이 급하니까, 삼치기하는 수밖에 없겠네.

셔틀버스

2008년도 2학기에 새로 생긴 교통수단이지요. 자유로와 진리로로 나뉘어 지는데 쉽게 말하면 아침에는 경복궁-동문-정문, 오후에는 신촌전철역-정문-기숙사를 왕복하는 버스입니다. 연세대도 셔틀버스가 생겼다는게 놀랍기만 하군요. 하지만, 평소에 신촌역이 멀다고 하신분, 아침에 등교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 기숙사 어떻게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약 20분이며, 중간중간에 버스가 없는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표 잘 확인하세요.

유의어) 중도버스

소 스

Source에서 온 단어로 보고서나 숙제 등을 주로 제공해주는 물주(?)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희생해야 전체가 편해지지요.

수강신청

마우스 클릭의 전쟁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0.1초 순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합니다. 올해는 또 제도가 바뀌던군요. 예과 교육위원회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제한 없이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제도를 개선하네요. 하여튼 수강신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열심히 들으시고, 수강신청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수강변경

수강변경은 수강신청의 클릭질에서 패배한 패자들을 위한 부활전입니다. 변경기간에 한 과목을 더 넣을수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우스 클릭의 이차전쟁이라는 것.

수강철회

수강철회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실익이 전혀 없을 때 포기하는 수단을 의미하지요. 보통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08학번에서는 수강 철회 선각자 한 분이 삶의 질(QOL)을 개선하기 위해 한 보 후퇴했을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그를 따라 한 20명정도가 철회 한 적이 있었지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다수이긴 했지요.

한번 감정에 휘둘려 철회를 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네요. 그래도 수강철회기간이 되어서 벌써 F가 뜰 것 같다는 사람들은 재고해 보면 좋을 듯하네요.

에이스

상위권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반의어) 베이스
유의어) 옵세

예3

예과는 2년 동안이지요. 그런데 예과 3학년이 될 수도 있냐구요? 본과 진급요건 즉, 재수강으로 처리하지 못한 F가 있거나, 예과 2년 동안의 평점이 2.0을 넘지 못하거나, 본과 진급에 요구되는 공인 영어 점수를 따지 못하면 예과 3학년 이른바 예3이 되고 맙니다. 예4는 없냐구요? 예과에서 1년을 더 보내고도 본과진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적되고 만답니다.

예3은 예삼의 이유를 연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플이 NP(non- pass)가 뜨면 채3, 토익이나 토플을 넘지 못하면 토3 등등이 있지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공인 영어점수 따 놓으세요.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터 끝나고 점심 때 선배

들이 예3 짜장이라고 예3방지용 짜장면을 사 줍니다.(유래는 .... 모르겠네요.)

Example) 2학년 2학기인데, 너 그러다 여차해서 F 하나 뜨면 예3이다!?

예과회장

예과 회장은 의예과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과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예과회장에게 가장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중운위, 이운위 모임 등 항상 할 일이 넘쳐난답니다. 따라서 강력한 leadership뿐만 아니라 잘 어울리는 사교성, 무슨 일이든 도맡아서 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힘든 직위랍니다.

Example) 해정이 형이 요번에 예과 회장이라면서?

예종

예과종합평가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너무 잔인한 뜻이라 차마 설명하지 못하겠네요. 비교적 확실한 정보인 기종과는 달리 예종은 그저 떠도는 루머일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일각에서는 없는 말이 나돌겠냐며 불안해하기도 하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과 과목 일부가 예과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추식

예과 추방식의 준말입니다. 예과를 2년만에 무사히 마치고(아니면 3년...ㅠ) 저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본과로 진급하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동아리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본과 공부에 많이 쓰인다는 색연필과 도장을 많이 증정합니다. 즉석에서 증정된 도장을 마구 찍어대기도 하지요(어디에-_-?).

Example) 예추식 때 받은 색연필, 쓰려니까 어딨는지 안보이네.

OB

Old Boy의 준말로(이거 생각해 보니까 성차별이네요.... 그래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라 이해 좀 ㅠㅠ), 우리 학교에서는 이르면 본과 2학년 2학기, 늦으면 본과 3학년부터를 OB라고 합니다. OB가 되면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에서 잠정적으로 손을 뗄 수 있다고 하네요.

반의어) YB(Young Boy)
Example) OB선배들께 연락 돌려야 되니까, 예과 1학년들 수고 좀 해줘.

옵세

Obsessive에서 유래한 말로, 성적에 과도한 중압감을 느끼고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이지만, 위험한 성적을 받은 모 학생은 '옵세가 될 거야'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반의어) 마구리

의전

의전이란 의학전문대학원의 준말입니다. 07학번 선배들부터 의예과 인원이 120명에서 60명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의전에서 채우게 되지요. 일단은 아직 선례가 없어서 07학번 선배들께서 수업을 해 봐야 알겠지만, 다른 대학교에서 4년을 열심히 하시고 의사가 되려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전은 예과라는 단계가 없이 바로 본과 1학년부터 시작하며 현재 연세대학교의 의전과 학부(우리가 소속)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등록금, 학제, 시험 등등... 가장 큰 다른 점은 석사학위를 주느냐 학사학위를 주느냐에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요.

반의어) 학부생

의종

의대 종합관의 준말입니다. 예과생이 의대 종합관은 왜가나 싶겠지만은 일단은 밥이 맛있어서 갑니다. 특히 점심 때(아침, 저녁은 비추예요..) 메뉴가 4개가 나와서 4000원인 원래 식단을 학생할인으로 2500원에 먹을 수 있답니다. 본교 캠퍼스에 있는 학관과는 비교가 안되지요. 많이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냉면 이런 것은 안 드시는게 나을 듯 ^^

ㅈ

자학실

본과 선배님들이 공부할 때 이용하는 자율학습실의 준말로, 의과대학 건물과 기숙사에 있습니다.(물론 예과생들이 들어가면 따가운 눈총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기숙사 사시는 09학번 여러분 절대로 자학실 들어가지 마세요. 본과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과생들을 위한 자학실이 있으니, 이과대와 과학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숙사에서는 자학실 앞이 매점이라 이따금 기숙사에서 늦은 새벽 시간 자학(?)하다 쉬러 나오신 본과 선배를 보며 포스를 느끼곤 합니다.

Example) 자학실 앞인데, 우리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냐?

족보

족보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일단은 본과에서는 매일 듣는 말일 것 같고요 순화해서 표현하면 '자료 집단 공유 시스템'이라고 번역하던가?

예과 때는 그런게 많지 않지만, 같은 교양을 듣고 있는데 선배들이 해놓은 필기가 있다 이러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지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족보로는 발생학 퀴즈 족보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선배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많이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종파

개파와 마찬가지로 종강파티의 준말입니다. 개파와 성격은 비슷하고요 여기서는 종강을 기념하는 파티겠지요? 많이 참여합시다!!!

반의어) 개파

중도

중앙도서관의 준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매일 중도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신중도가 생기면서(2008년 완공)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아니면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기 위해, 조모임을 하기 위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게 되는 곳은 구중도 1층에 24시간 열람실, 2, 3층에 책 빌리는 곳, 신중도 1층에 컴퓨터들과 협업실, 2층에 멀티미디어실 3층에 열람실, 노트북 열람실, 4,5층에 세미나 실 등이 있지요. 노트북이 있으신 분은 전원코드도 가지고 다니면 무한 배터리로 쓸 수 있겠지요.(자리마다 전원 콘센트가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열람실 강추) 중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증(RFID 기능을 사용합니다.)이 필수이며 없을 경우에도 이야기를 잘 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친구들이 와도 자기 학생증이나 친구의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갈 수는 있지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library.yonsei.ac.kr

예) 중간고사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중도에라도 갈까?

중도버스

중도-기숙사를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오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하지만, 밤에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도-기숙사를 이어주는 버스가 다닙니다. 배차간격은 시간 때마다 다르니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유의어) 셔틀버스

ㅊ

착복식

본1올라가면서 가운 입는 것을 착복식이라고 하는지 본3올라가면서 실습 돈다고 가운 입는것을 착복식이라고 하는지 헷갈리네요ㅠ 뭐 동아리 행사 같은데는 꼭 끼여있을 겁니다.

채플	전형적인 미션스쿨로서 연세대학교 의예과라면 매 학기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다른 학과는 4년동안 4번인가 들으면 되지만 말이죠. 1학년은 교목실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지정된 시간에 채플을 들어야 하고요(강의시간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교목실에 부탁하면 바꿔준다네요.) 2학년이 되면 수강신청에서 신청하는대로 시간이 정해진답니다. 불합리하다고요? 그럼 2학년 빨리 되세요. ^^. 전자출결에 지정좌석까지 복수로 출석체크를 하는지라 대출이 그렇게 쉽게 되는것도 아니니 열심히 나오셔야 해요. 공식적으로 4결 2지각까지 가능하고요(3지각이 1결) 그 이후에는 채플 NP로 채3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목실가서 소리치면 뭐 Pass로 바꿔 준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경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네요. 밑에 나온 선배 이름 참고하세요^^ Example) 나 채플 5결인데 2결 3지각으로 바꿨어...?! (08 이정우)
출 F	출결상황(결석이 전체 시수의 $\frac{1}{3}$ 이 넘는 경우)때문에 F를 받는 거지요. 다른 학과 학생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의예과에서는 수업을 워낙에 능숙하게 째다 보니 교수님께서 그 전문성에 '출F'라는 상을 내려줄 수 있지요. 이미 선배들 중에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받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교칙 때문인데요, 결석이 총 수업의 $\frac{1}{3}$이 넘을 경우에 출석 F가 뜨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시험을 아무리 잘쳐도 이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이라 교수님께서 출석만 컴퓨터에 쳐 넣으면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천사같은 교수님 중에는 재량으로 출석을 약간 왜곡(?)하여(제 생각입니다.) 출F를 주지 않으시지요....)

ㅋ

ㅌ

타다	시험이나 중요한 과제를 앞두어 마음이 매우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험 따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놀다가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주로 보이는 반응들이지요. 시험 뿐 아니라 동아리 공연 등의 경우에까지 폭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Example) F 면하려면 내일 60점은 맞아야 할 텐데, 완전 탄다.

ㅍ

파도타기

이런 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동아리에서는 약간 유명한 것이라...ㅠ 'ㅍ'항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 써 봅니다. 파도타기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로 응원할 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서 파도처럼 보이는 것이지요?(이걸로 물리1에서 파동을 설명하던가요?) 이것이 술자리에서 응용된 것이 여기에서 설명하려는 파도타기입니다. 일어서는 것 대신에 술잔이 들려야 하지요. 주로 맥주 한 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시간차를 두고 차례차례 원샷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파도타기 2번을 연속으로 한다면... 생각만 해도....(죄송합니다.)

ㅎ

학 고

학사경고의 줄임말입니다. 기준은 평점 1.75로 넘지 못하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지요. 학사 경고 1회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의 면담이라는 배려가 주어집니다. 모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어 학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여 주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진위는 본인만이 알겠죠? 학사경고 2회는 투 고라 불리며, 학부모 소환이 요청됩니다. 학사경고 3회 쓰리 고의 경우에는 아예 제적당하게 됩니다. 평점 0.0x 차이로 학고를 면하거나, 원래 평점 1.75를넘지 못했지만 교수님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메일을 보내 간신히 학고를 면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학기말에 가끔 들리곤 합니다. 인생에서 한번쯤 받아도 괜찮은 유일한 경고가 학고라는 말도 있던데, 선택은 각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_-;;

유의어) 투 고, 쓰리 고(고스톱 용어가 아닙니다!!)
Example) 그래도 예의상 학고는 피해야 하지 않겠어?

학 관

학관에는 슬기샘(서점), 알뜰샘(문구점, 잡동사니 많이 팜), 여행사, 은행, 우체국, 식당, 보건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학생 회관의 준말이지요.(오른쪽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샘은 비추입니다. 아샘컷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정도로 아주 자~알 깎아 주더랍니다. 식당도 비추천이지만 그런데로 가서 먹을만은 합니다.(가격면에서 ㅠ) 많이 다녀보는 것이 좋겠지요? 아, 그리고 글로벌 라운지(줄여서 글라)는 토론 장소도 되고 공부장소도 되니 한번 가보셔요. 그 옆에는 버블티 파는 곳(이름이 가물가물..ㅠ) 이 있답니다. 쿠키 바닐라 강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시길
http://www.yonseicoop.co.kr/

향우회

지역별로 선후배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이 있고요(솔직히 4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선배들과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되지요. 신입생이 가는 첫 번째는 항상 '쇼'를 하더군요. 선배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 드려야 합니다. 지역마다 정장을 입고 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구는 정장을 입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술을 엄청나게 마실 수 있다는 이점(?)도 ^^. 술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죽음의 날일 수도 있지만, 잘 어울리다 보면 만나기 힘든 교수님이나 fellow등을 만날 수 있어 좋답니다.

Example) 이번 향우회는 감나무집에서 합니다. 위 방업 해 오세요.

1년동안의 주요행사 및 세부일정 소개

1학기는 200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참고했고,(물론 행사는 2008년도 자료입니다. 행사 일정은 학사일정에 나오지 않아서 말이지요) 2학기는 학사일정을 제외한 행사 일정으로 짰습니다. 귀찮었어요ㅠㅠㅠ 라기 보다는 중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기본적인 학사 일정을 이 글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행사하고 학사일정을 따로 하자는 안모군의 의견이 있었으나, 편집자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둘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 순환과 소화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요.

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			B	C										

2월 한 달은 개강 전이라서 많이 한가한 날입니다. 일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지내시겠지요. 2월 달에는 공연동아리의 공연이 많습니다. 꼭 보러 가셔서 동아리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그 것 말고는 많이 먹고, 많이

A. 입학식(2009)

2008년의 경우 3월 2일, 개강일에 입학식을 했지만~ 이때 다들 플스방이나, PC방, 당구장 등으로 단체로 몰려가는 바람에 (이때 남자는 저희의 경우 한 20명씩 움직였던 것 같네요) 입학식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후일담이 전해져 내려오네요. 3월 2일 아침에 물리였는데 물리 교수님께서 휴강을 해 주셨는데 말이지요올해의 경우에는 2월 16일 잠실에서 '빅뱅'과 함께 한다고 하네요~^^

B. 수강신청(2009)

7시부터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PC방에 간 기억이 나네요. 수강신청을 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대로 따라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수강변경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교수님께 요청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C. 새터(2009)

2008년 2월 20-22일, 동기들의 끼와 재능을 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필참! 안가셔도 돈은 다 내야합니다~ 올해도 동일한 날에 진행됩니다. 3일 간의 새터 끝에

3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B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C				D	E					F		

3월 개강하고는 정말 바쁘답니다. 새터 뒤풀이 한답시고, 술집 돌아다니랴, 수업에 적응하랴, 미팅·소개팅하랴 많이 바쁜 시기지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밥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터 뒤풀이 가는 것과 동아리 드는 행사는 별개이니 마음껏 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동아리 분위기를 아는데 새터 뒤풀이가 최고니까요. 새터 뒤풀이는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데 두, 세 동아리가 한 날에 겹치는 경우가 있답니다.(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시간을 내서 다 들려 보시든지, 생각이 있으신 동아리만 들려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 아 그리고 개강하면 개강파티는 필수지요. 작년에는 4월달에 했습니다만, 새터 뒤풀이랑 조율을 잘 해서 개강을 축하하는 개강파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할 때 실험복, 고글, 책 등을 구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험복, 고글은 1년동안 쓰이니까 사도 되고, 아니면 선배들에게 얻어도 됩니다. 아마도 선배에게 얻는 것이 더 나은듯 합니다만. 약간 더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은 시험기간에 책을 복사해서 써도 되고, 사도 되고, 얻어도 됩니다. 안 주는 선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물려 주실겁니다. 물론 후배에게 돈 받고 판다는 선배도 있습니다.

A. 개강(2009)

드디어 수업의 시작이네요. 다들 수업을 즐기면서 한 학기의 시작~

B.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2009)

수강신청 후에 수강신청 상황을 정리 및 수정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수강신청과는 다르게 아침 8시부터 수정이 가능하답니다. 그 점 잘 고려하셔서 좋은 과목을 더 넣으시든지, 바꾸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변태적인 교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님들은 수강신청기간 전까지의 출석을 성적에 반영하시지 않으시니까요, 알아서 잘 행동하시길...

C. 상반기 합동응원 O.T.(2008)

2008년 3월 20일, 연고합동응원 O.T.가 고려대학교 호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호암체육관에서 연대와 고대의 응원을 서로 배우고, 응원을 하고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함께 가서 응원을 배우고, 우리끼리도 친해질 수 있고 고대의 더러운 꼬찔찔이 거지발싸개녀석들에게 연대의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예요^^

이거 끝나고 밖에 나와서 둘러 앉아 뒷풀이 가기전에 잠시 서로 응원을 하게 될텐데~ 이때 적극적으로 가운데로 돌진해서 응원을 선창하도록 합시다~

다만 뒷풀이 자리에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셔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요~

아마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응원 O.T.가 연대에서 주최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노천대극장의 좌석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대의 자리까지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셔야합니다. 과대분께서는 사전에 미리 고대의 과대와 연락을 취해 서로의 참석 인원, 뒷풀이 장:`

능을 어느 쪽에서 어디로 예약할 건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D. 해오름제(2008)

해오름제는 이과대학 행사입니다. 이과대학 소속으로 되어있는 의예과도 빠질 수 없는 행사겠지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전 부치기'지요. 몇 년동안 사용한지도 모르는 후라이팬에 전을 구워먹는데 이 때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더군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전의 양은 굽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지..... 전 굽는 연습은 미리미리..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선배들이 밥 사준다고 먼저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끝까지 정리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구요.. 그리고 후라이팬 더럽다고 선배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더러웠답니다. 과대는 후라이팬과 버너가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E. 동아리 소개식(이하 동소식)(2008)

동아리 소개식,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동아리 소개식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모든 학생들의 동아리가 결정되지요. 물론 이 날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의대 생활에 있어서 동아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동아리 소개식이라는 말 답게 각 동아리마다 고유의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공연동아리는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전시 동아리는 전시물들 등 여러 가지를 보여준답니다. 이를 잘 보고, 듣고 판단하세요. 다들 2월, 3월동안 많이 고민 했던 것을 이날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어영부영하다가는 선배들이 납치(?)해 간답니다. 정신 차리세요~

F. 수강철회기간.(2009)

2008년도까지는 수강철회가 5월달 즉, 중간고사 다음 주였는데 기간이 옮겨졌어요. 조금 이른 시기에 하는거지요. 수강 철회(withdraw)를 하게 되면 성적표에 W가 뜨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8년이전에는 W가 졸업 때까지 따라다녔지만 2009학년도 오면서, W가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없어진답니다. 너무 부담되는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철회하셔도 될 것 같네요. 물론 전공은 철회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												

4월달에는 동아리, 향우회, 동문회 등에서 신입생 환영회(이하 신환회)를 한다고 쇼 준비한다고 바쁘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의 넘치는 끼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동아리마다 꽃사진을 찍는 답니다. 약간의 담력과 망가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누울 수 있는 용기가...!! 신환회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중간고사가 코 앞이겠군요. 중간고사 전이나 후에 대학생활의 낭만 MT 한 번 가셔야지요??

A. 중간고사(2009)

중간고사, 고등학교 때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입니다. 전공 시험은 고등학교 때의 실력으로 해도 충분하실 겁니다. 물론, 과고생, 올림피아드 학생들에게는 학점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본과 진입요건의 장벽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시험 범위가 쉬울 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건 제 의견이고요, 알아서 잘 하세요 ^^ 그리고 전공과목들은 10,11교시에 배치 되는 것 잊지 마세요. 금요일 10,11교시까지면 끔찍하답니다.

5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B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									

5월달 놀기 좋은 날들입니다. 대동제, 아카라카에 입실렌티까지.. 열심히 놀아봅시다. 참고로 5월 9일은 창립 기념일이라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라는거...

A. 연세인 연합채플(2009)

항상 연합채플 때는 말이 많아요. 연합채플은 기존 대강당에서 하던 채플을 노천강당에서 넓고 길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때 결석을 해도 1결이고요(명심하세요. 항상 2결이라는 루머가 돕니다.) 2시간까지 시간을 안 끌고, 약 1시간 안에 끝나더라고요. 한번쯤은 들어볼만 합니다.(참고로, 전 비종교인입니다.)

그냥 결석 아꼈다가 째세요 날도 더워죽겠는데 밖에서 할것까지야 ——; (물론 신실한 기독교 신자 여러분은 당연히 가셔야겠죠^^;;)

B. 대동제(2008)

대동(大同)제,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단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행사입니다.

2008년, 5월 17일,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행사였습니다~

소녀시대, 박진영, 거미, VOS 등등과 함께하는 연세대학교의 응원전~!!! 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2시부터 밤 11시가 되도록 노천극장에 사람들 사이에 끼여서 있으면 살짝 힘들긴합니다ㅜㅜ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나의 태연양의 미소로 파워 UP !! (윤아양은 편찮으셔서 못오셨었다는..--^^).. 사실 왼쪽의 사진 처럼 크게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의 티켓을 구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노천극장의 수용할수있는 인원에 비해 아카라카를 보고 싶어하는 인원이 매우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아카라카와 입실렌티는 각각 연대와 고대의 축제이지만, 연대와 고대가 같이 참여하는 성향이 매우 짙어서 고대의 티켓도 구해줘야해요ㅜㅜ^^;

작년의 경우 5월 13일 오전9시부터 티켓팅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전날 오후 3시부터 학생회관 뒤편으로는 수많은 돗자리들과 텐트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기숙사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서 밤을 새워서 다음날 수업도 포기하고 티케팅을 결국 해주셧지요. 게다가 작년의 경우에는 총학과 응원단측의 마찰로.. ㅜㅜ

Anyway! 아카라카를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1.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서 티케팅을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아카라카 당일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최대한 넓은 자리를 확보, (테이핑) 연대와 고대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리를 확보해야겟죠.
3. 과대의 경우에는 이때도 미리 고대측과 연락을 취해서 확보한 티켓 수를 주고 초대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뒷풀이'에 대한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래요.

사실 작년의 경우 고대측에 티켓 수량을 충분히 확보해주지 못해서 뒷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ㅜㅜ

또 이 '대동제' 기간에는 각 단과대 혹은 동아리별로 '주점'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5월 17일에 진행되었구요~ 사실 준비가 많이 부족했지만.. 아래쪽에 보이는 미남 들의 활약으로~!! 매우 장사는 성공적으로 잘되었습니다만... 수십만원상당의 적자가 났다는...-_-; 아직도 어디서 적자가 났는지 파악을 못하고 잇습니다..ㅋㅋ누가 그랫을까?? (난 알지~)

단지 사전에 메뉴라던지, 조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좀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많이 불러서 같이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이 '주점'을 하는 동안에 연세대학교 곳곳에서는 음악동아리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백주년기념관 앞이랄지, 독수리상 옆이랄지요^^)

이 때 만큼 캠퍼스가 활기차고 아름다운적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짜증나는 건 커플이 많다는 건데요, 저도 누군가와 함께 즐기고 싶다는 .... ㅜㅜ

특히, 작년에는 '청송대'에서 'NELL'이 공연을 펼쳤지요!! 두둥!!

C. 입실렌티

그냥 아카라카의 고대 버전입니다 ~ㅋㅋ 고대가 넓어서 좀더 편하긴 할꺼에요~ 꼭 반드시 필참!!!(꼭까지야... 난 안갔는데)

6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B										

5월달에 정말 열심히 노셨겠지요? 그럼 다시 공부할 시간입니다. ㅠ

A. 기말고사(2009)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할만 합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중간고사와 시간표는 거의 차이 없을 겁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이니까 힘내세요.

B. 여름방학시작(2009)
대학교 처음 여름방학입니다. 방학은 긴 데 비해 시간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가니까 보람차게 보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좋을듯한게 아니라 좋습니다. 이 때 유럽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행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한 5월달부터 준비해야 할 듯. 그리고 공연 겹치는 분들은 방학하자마자 아님 시험 치자마다 출국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연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7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8월은 진정한 방학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연동아리 때문에 대부분 바쁘지요. 물론 공연 동아리를 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쁠 것도 없는게 방학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 학원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학사일정은 아래에 첨부 한 것을 참고하시고 동아리 공연일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기준)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										

A. 연고전
아하하, 연고전 둘째날이 끝나고 난뒤에 새벽4시 30반정도 헤어지기 직전 뒤풀이 사진입니다.

왼쪽은 NORMAL 모드, 오른쪽은 CRAZY 모드입니다. 노말모드와 크레이지모드가 별 차이가 없군요 -_-;; 잇힝 그나저나 이 사진 찍을 때 자리 한번 잘 잡앗네요~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2008년의 경우 9월 5일, 6일 2틀에 걸쳐서 진행되었구요, 3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고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꿈틀대는 고대 지렁이 새끼들이란 ㅉㅉ

머 여기까진 그냥 농담이구요~ 2008년의 경우 '고대주최'였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연고전'이었습니다. 2009년의 경우 '연대주최'이기 때문에 '고연전'이 됩니다^^ 그치만 무조건 '연고전'입니다!! 유놈쎙?? (이명박 대통령 생가에 가서 사진을 봤는데 거기도 연고전이라고 해 놓았더군요. 고대인데도 연고전인데 당연히 연대면 연고전!!!)

따라서 작년의 경우에는 고대주최이므로 안암의 참살이길에서 기차놀이를 했지만 올해는 신촌에서 기차놀이를 해야겠지요^^; '사장님, 목말라요~ 사장님 만세!' 요런거 해주시면 맥주는 공짜~ 기차놀이 이후 늦어도 새벽 1시가 되면 이제 정착을 해야하므로... 연고전하기 전에 미리미리 맥주집을 1차로 예약해두고, 2차로 치킨집이나 그런 곳을 과대분께서는 미리미리 신경써서 예약해두도록 합시다 (2차 갈곳은 많은데.. 1차 끝나곤 술집이 다 포화상태라 꼭 예약해 두셔야 해요~)

연고전의 경우에 잠실에서 진행되는데, 야구, 축구, 럭비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과대별로 입장하는 순서(5일 오전 7시(야구), 6일 오전 9시(럭비, 축구)부터 진행, 자리를 맡을 소수의 인원만 입장하면 됩니다.)의 티켓만 한 장씩 배부됩니다. 이 것에 대한 예약도 매우 치열했지요~ 요런 것도 09학번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가장 좋은 자리에서 두 다리 쭉 뻗...지는 못하고 서서 응원을 하면서 볼 수 있답니다. 다행히 이것의 경우에는 밤을 새지 않고, 오후2시에 온라인으로 티켓배부장소가 딱 공지됩니다. 미리미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티켓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티켓을 배부받아야해요. 작년의 경우에는 백주년기념관 앞, 소운동장 옆 시계탑, 체육관 앞 이 세 곳 이었습니다. 연고전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UIC옆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고전 도중의 방송제는 연고전의 백미죠ㅋㅋ 작년에 최고의 히트를 쳤던 '고대라니~~~' !! 새터에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께요^^~

그리고 농구와 아이스하키의 경우 각 단과대별로 단과대 정원에 비례하여 티켓이 배분됩니

다. 농구의 경우 약 20장, 아이스하키의 경우 약3장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8, 09학번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B. 세란제

<세부 일정>

영화제 : 9월 22일

바자회 : 9월 23일, 25일

체육대회 : 9월 24일

분극의 밤 : 9월 25일

세란인의 밤 : 9월 26일

음.. 세부일정을 보니.. 영화제와 바자회가 있엇네요???? 저도 지금 알았네요(농담...이었으면 좋겟는데 정말 지금 알앗어요 orz) 어렴풋한... 희미한 기억의 발자취를 떠올려보면 영화제는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구요, 바자회는 많이들 해보셨을테니까 생략할께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사실 '게임대회'도 진행이 되는데요~ 카오스, 서든, 위닝, 스타 등의 실력을 겨룰 수 있구요~ 중요한건 상금이 걸려있다는 것이죠 ㅎㅎ

체육대회는 각 동아리별로 단합을 해서 각종 경기에서 늠름한 자웅을 겨룰 수 있어요
소운동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그랫어요) 피구도 하구요, 젠가도 하구요, 줄다리기랑~ 단체줄넘기도해요~ 섬세한 손놀림을 겨루는 젠가도 하구요~ 팔씨름도해요ㅎㅎ 작년도 우승하신 여자선배님께서는 저보다도 늠름한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자태를 뽐내셨답니다^^(제가 워낙 빈약해서... 쿨럭)

동아리 선배를 세워놓고 물풍선도 던질 수 있구요!!!!! 그렇다고 선배를 정말 죽이려고 물풍선 속에 돌맹이를 넣어 집어던지거나 하면 안되는건 상식인거 아시죠? 가끔 모르시는분들도 계신것같더라구요 ㅎㅎ

작년도의 우승은 '농구부~ Severance Basketball' 이 차지했구요! 준우승은 '축구부~ Severance Soccer Team'이 차지햇다고 하네요^^

운동장 한 켠에는 시원한 맥주가~ 언제든지 공짜로!! 리필가능하게 준비되어있답니다.(맥주회사 협찬을 받았답니다.)

분극의 밤에는 본과 1학년 선배님들부터 본과 4학년 선배님들의 연극을 볼 수 있어요. 이 분극의 밤은 연극동아리 '극회'의 극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연극을 해보는 기회라 둘도 없이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본과에 진입하게 되면 한번쯤 해보고 싶네요^^ 선배님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네요 ㅎㅎ

그리고 마지막 꽃은 세란인의 밤!! 하이델베르크하우스를 통째로 빌려서 아주아주~~ 저렴한 가격에 안주와 맥주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하우스의 일부를 stage로 만들어서 춤이라던지 노래 등등의 다양한 자기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코미디 꽁트라던지, 마술이라던지 보다 더 다양한 끼와 재능·

보고싶은 바램이 있네요. 그리고 여장콘테스트!!! (전 여장 해보는게 소원이랍니다ㅜ.ㅜ 저좀 시켜주세요. 근데 혼자나가면 영 그렇고... 한 5명은 같이나가야 좀 뭔가 노바디라도 추고 그러지 않겠어요?^^;;ㅋㅋ)

이 세란제 기간에는 많은 일손(짐나르고, 진행하고, 서빙하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이하 자봉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물론 무보수로 진행이 되구요 ㅜ.ㅜ 대신 STAFF라고 글씨가 새겨져잇는 붉구무리죽죽한 고대스러운 카라티를 하나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슬슬 입질이 오지 않으시나요?^^; 자봉단하면 이것저것 생각보다 일 진행같은것 많이 배울 수 있구요~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과 친해질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ㅎㅎ

아 그리고 세란제 기간에 혹시 의예과 학생분반인 전공수업이 있는 경우에 총대표(과대표)는 사전에 미리 이과대학 사무실에 찾아가서 의대축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수업에 들어갈수 있는 인원이 2~3명밖에 되지 않아 휴강을 요청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시면 (세란제 시간자료집들고 휴강원하는 2~3일전에 찾아가세요. 정말 2~3명밖에 안올것같냐라고 물으시면 동아리가 워낙 엄해서 무조건 학생들 다 빠져서 어쩌면 2~3명도 못갈 것 같다고 세게 나가세요. 휴강 안되면 저희야 그냥 결석처리 되는건 괜찮은데 교수님께서 기분상하실것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최대한 에둘러서 표현하세요) 휴강 요청 공문을 작성해주실텐데, 의과대학 학생회장 분의 도장 혹은 서명을 받아 그 공문을 미적이나 화학 교수님께 제출하면 wonderful한 휴강이 되는 거예요~

10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													

9월도 열심히 노셨으니 10월은 다시 공부할 때입니다. 중간고사네요

A. 2학기 중간고사(2009)
 굳이 설명할 필요가...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														

11월 12월에는 행사가 거의 없네요. 열심히 보람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허전해서 하나 넣어요

A. 2학기 기말고사(2009)
알죠?

헉헉.... 여러 가지 행사와 일정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적다보니 양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학사일정은 당연히 챙기셔야 할 것이고, 과행사에서는 09학번 여러분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드시 참여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을 위해 2009학년도 1, 2학기 학사일정을 첨부합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신촌]-[학사일정]

1학기
http://www.yonsei.ac.kr/contents/sinchon/schedule91.html
http://www.yonsei.ac.kr/contents/sinchon/2009schedule1.jpg

2학기
http://www.yonsei.ac.kr/contents/sinchon/schedule92.html
http://www.yonsei.ac.kr/contents/sinchon/2009schedule2.jpg

2009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표

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반휴학 접수시작 / 졸업신청 및 연기신청														입학식 / 2009-1학기 수강신청				2009-1학기 등록		졸업예배	학위수여식				겨울방학끝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3·1절	개강			교무위원회 대학원장협의회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009-1학기 추가등록				일반휴학 접수마감			학장협의회				조기졸업신청							수강철회	
4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수강철회	교무위원회					학기 1/3선			聖금요일		부활절				학장협의회				2009-1학기 중간시험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5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명예교수의날	연세인 연합채플		창립기념일					대학원장협의회 교무위원회 [illegible]							학장협의회										
6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교무위원회		현충일		질병휴학 접수마감							2009-1학기 기말시험			학장협의회				여름방학시작 계절학기시작 / 캠퍼스내복수전공신청					성적제출마감				
7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제헌절						계절학기끝								
8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일반휴학 접수시작 / 졸업신청 및 연기신청												광복절		2009-2학기 수강신청				2009-2학기 등록							학위수여식 여름방학끝			

2009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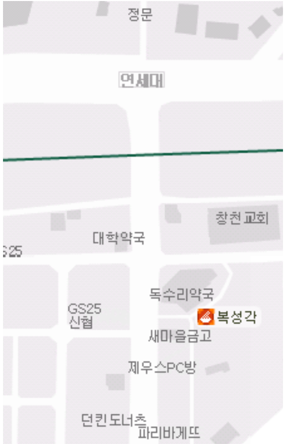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일반휴학 접수시작 / 졸업신청 및 연기신청												광복절		2009-2학기 수강신청				2009-2학기 등록							학위수여식 여름방학끝			
9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개강		교무위원회 대학원장협의회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009-2학기 추가등록				일반휴학 접수마감			학장협의회				조기졸업신청							수강철회			
10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교무위원회	추석연휴						학기 1/3선			연세대 감사절		연세인 연합채플		학장협의회				2009-2학기 중간시험							캠퍼스내소속변경신청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교무위원회 대학원장협의회								학기 1/3선 [illegible]						학장협의회												
12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교무위원회				질병휴학 접수마감							2009-2학기 기말시험		성탄예배	학장협의회				겨울방학시작 계절학기시작 / 캠퍼스내복수전공신청				성탄절	성적제출마감					
2010 1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신정																					계절학기끝			졸업신청 및 연기신청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졸업신청 및 연기신청							2010-1학기 수강신청					설연휴						2010-1학기 등록		졸업예배	학위수여식				겨울방학끝					

어디서 뭘 먹을까~?

-신입생들을 위한 신촌 나들이

*** 식 사**

1. 복성각



연대생이라면 정말 자주가는 복성각~ 서문의 연세반점은 가기 편리하지만 정문을 나가서 중식을 먹으려면 역시 복성각ㅎ;;

추천 메뉴 : 무쉬오 빨판, 마늘볶음밥, 광동밥 등 (5000원 내외)

2. 유가네 닭갈비

이건 체인점인데 닭갈비가 맛있어요ㅋ 냠냠 치즈를 얹어 먹으면 참 맛있어요.. 밥먹고 나오면 옷에 냄새가 배기긴 하지만 -ㅅ-; zzz 걍 먹고싶으면 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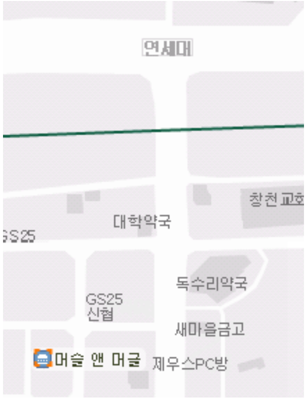
추천메뉴 : 유가네 닭갈비(6500원) + 치즈사리

3. 머슬 앤 머글

-_-; 위에 두 집이 너무 평범한가 싶어서 조금 특이한 집 추천(?) ㅋㅋ 맛은 그냥 평범하나...(제가 먹은 메뉴가 그저 그랬을 수도) 이국적인 음식을 한 번 먹어보고 싶다 !! 겪어보고 싶다 !! '벨기에식 홍합요리' 전문점 이에요ㅋ 이국적인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께 추천~

추천메뉴 : 홍합피자 (10000원 내외)

4. 머노까머나



인도식 카레 전문점입니다~ 맛있구요 -_ㅠ 음ㅋ 카레라고 해서 한국식 카레를 생각하지 마세요ㅋ 특이한 향과 맛 그리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촌 맛집 !!!

추천메뉴 : 카레는 다 (8000원 내외)
Tip ! 코코펀을 가지고 가면 할인^^

5. 라멘

대학 입학해서 처음먹어본 일본식 라면~
처음 먹었을 때는 느끼해 죽는 줄 알았지만 -_- 계속 먹다보니 느끼한게 참 좋아지더군요 ㅠㅠb
일본식 라멘집은 신촌에 참 은근히 많은데 그냥 왠만하면 맛있어요z

추천 메뉴 : 소유라멘 미소라멘 등 등

6. 니지

초밥 뷔페집이다~ 약 12000원의 돈을 내고 1시간 30분동안 열심히 먹고 나오면 된다ㅋ 분위기도 괜찮고, 초밥 뷔페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듯?? 코코펀 뒤적뒤적 거리다가 찾아서 가게 된 집ㅋ 코코펀은 참 유용하다 +_+//

추천 메뉴 : 그런 거 없다ㅋㅋ 뷔페식임 (약 12000원)
Tip ! 코코펀을 들고가면 7% 추가 적립, 평일 점심이 제일 쌈ㅋ (다들 그런가 -_-) 위치는 ENTER(오락실) 건물

7. 체인점 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독수리 빌딩과 창천교회 길로 5분정도 걸으면 됨)
베니건스 (이대 쪽에 있음)

피자헛 (신촌역 2번출구~연세대학교 중간지점에 있음)
미스터피자 (아웃백을지나 2분정도 더 걸으면 있음)
오무토토마토(신촌역3번출구~연세대학교 거리 중간 지점에 위치)
스파게티아(X자 횡단보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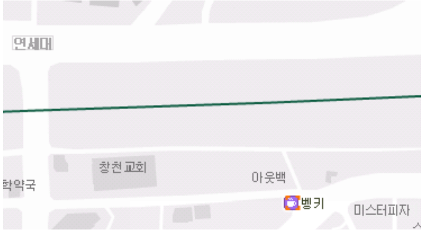
8. 기타

하루(돈까스)
초록옹기(김치찜)
지글지글(고기부페 촌-술집이기도 함)
함흥냉면개성만두(냉면과 만두)
율촌칡냉면(칡냉면과 만두)
PASTA12(파스타 피자 집)

* 디 저 트

1. 뱅키

이젠 디저트!! >_<
우왕~ **맛나는** 와플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u>길거리</u>에서 먹고싶다면 -.-;; 뱅키에서 착한가격으로 먹어보아요



추천메뉴 : 요거트 와플(2000원)

2. 루시카토

괜히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쓰는 듯 -_-; 신촌이 지겹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근데 멀리가기는 귀찮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ㅋ

최근에 생긴 디저트 전문점이라는데... 초콜릿 전시장(?) 같은 것도 있고 좀 눈요기 할 것이 많은 곳 같다 !!!

3. 체인점 들

- 커피숍 :
할리스, 파스쿠치, 빈스베리즈 (신촌역 2, 3번출구~연세대학교 거리 중간 지점에 위치)
투썸플레이스 (신촌역 2번출구)

- 아이스크림 집 :
나뚜루 (신촌역 2, 3번출구~연세대학교 거리 중간 지점에 위치)
구스띠모 (형제갈비/니지 맞은편 위치 : 밥 집 6번 참조)
콜드스톤 (이대 정문 앞)

- 도너츠 집 :
크리스피(X자 횡단보도에서 휘어진 길 쪽을 쳐다보면 보임; 니지 근처)
던킨도넛(신촌역 2, 3번출구~연세대학교 거리 중간 지점에 위치)

*** 술 (가격 책정 불가)**

1. 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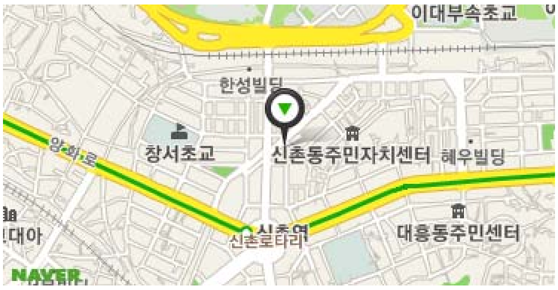
탁주 전문점~ 파인애플 탁주가 참 맛있다. (-_- 제정신으로 안 가서 그런가ㅋㅋ) 안주도 냠냠 괜찮은 집인듯~ 미팅하기 좋은 장소라고 친구가 그랬다ㅋ

추천 메뉴 : 파인애플 탁주

2. 준코

가본 적 없는 술집 -_-; 그러나 지인들은 많이 가봤단다.
배를 비우고 돈이 없는데 배를 채우고 싶을 때z 준코를 가보자~ 안주가 무료로 참 많이 나오는 집 ^^

3. 크리스터 치킨



크리스터 치킨을 모르면 연대생이 아니다?! 라고z 다른 대학교 친구가 내게 말해줬다 -_- 제발 자기를 크리스터 치킨집으로 데려가 달란다z 크리스터 치킨... 참 바삭바삭한 맛

추천메뉴 : 양념치킨 빼고 다

4. 체인점들

BBQ & Beer
WARAWARA

5. 기타

주선생
하이트잭
하이델베르크
연대껍데기
신계치(이건 술집이 아니라 해장하러 가는 곳인데...ㅜ)

아... 쓸게 많은데 이것 밖에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ㅋ
안 나와 있는 맛 집은 멋있고 예쁜(?) 선배님들과 함께 해요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리

없는 것 빼곤 다 있다! 여러분이 입학하신 연세대학교 의대에는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12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 의대(여러분은 60명이지만)에서 이렇게 많은 동아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바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를 1~2개정도 가입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의대엔 이렇게 동아리가 활성화 돼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의대 외 다른 과 학생 중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학생도 꽤 된답니다). 그건 의대 내의 인맥관계, 행사 등이 모두 동아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의대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아리, 과연 어떠한 동아리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차는 아래에 나와 있고요. 전체 편집을 통일하느라 글씨체, 그림배치 등을 바꾼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광혜 학보
노래 세상
농구부
미술반
세네마
세란 극회
세란 사진반
세브란스 오케스트라
세 스
야구부
연세 의치간 기독모임(CMF)
의 청
이브닝 콰이어
축 구 부
타 름
테니스부
포도나무
피아노 동아리
합 창 단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당신의 목소리,
이제 광혜학보를 통해 꺼낼 때입니다.

제 117 호

광 혜 학 보

연세의대의 100년 동반자, "의학도서관"

한 세기 동안 의대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의학도서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117호 미리보기

광혜학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일한 학생 신문 동아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작은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눌 수 없을까'라는 03학번 선배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시작한 '세란신문부'가 기존에 존재하던 '광혜학보'와 합쳐져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익명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크게 적어서 벽에 붙여버리고 싶었던 적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을 듣고 공감해주면 그보다 기쁠 수 는 없겠죠.

광혜학보는 바로 여러분의 이러한 꿈들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통로입니다. 내가 흠뻑 빠져있는 개인적인 취미에서부터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까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이 바로 광혜학보의 신문 지면입니다.

1. 광혜 학보가 걸어온 길

1980.05.15	세브란스 교우회보 창간
1980.05.17	당시 군부세력의 확대 계엄으로 폐간
1981.10.07	의료원 소식 3호부터 <학생란>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시작
1986.06-07	치과대학 수업거부에 대한 호외를 만들어 뿌림. 이후 징계가 내리고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 차례 파동이 있었음.
1986.09.29.	파동 이후 독자적으로 <학생란>을 발행
1986.10.27	다시 의료원 소식지와 연합하여 함께 발행
1987.05.11	<한미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기획 기사를 소식지에 기고하는 것을 의료원에서 반대
1987.06.	6.10 대회 상황에 관한 별지를 발행
1987.11.30	**<광혜학보>**를 창간

2002	광혜학보 93,94,95,96 호 발간
2003.09.30	03학번 내에서 **세란 신문부가 자체적으로** 탄생
2003.12.08	세란 03신문 1호 발행
2004.03	세란신문부가 광혜학보 및 의대 학생회와 연결
2004	세미나(신문 읽기의 혁명-손석춘) 개최 광혜학보 99, 100호, 101, 102호 발행
2005	광혜학보 103, 104, 105, 106호 발행
2006	광혜학보 107, 108, 109, 110호 발행
2007	광혜학보 111, 112, 113, 114호 발행
2008	광혜학보의 지원금이 의대등록금으로부터 나오게 됨. 신문 기사 작성에 대한 세미나 광혜학보 115, 116, 117호 발행

2. 광혜학보의 현재

(1) 광혜학보의 활동

1) 활동 일정

광혜학보는 **일 년에 네 번** 신문을 냅니다. 한 분기 당 한 번의 신문을 내는 셈입니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할 때 쯤, **편집회의**를 갖습니다. 편집회의는 이번 신문에 어떠한 기사를 실을 것인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제를 다룬 사회 기사, 영화·연극 감상 등의 문화 기사, 학교 내의 문제를 다룬 학교 기사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사거리들이 다 모이면, 각자 한 개 혹은 두 개씩 기사를 맡습니다.

기사를 맡으면 먼저 **기사에 대한 개요**를 짭니다. 그 기사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기사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대략적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만든 개요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모여서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그 기사의 방향이 모두의 의견과 부합하는지 의논합니다.

개요가 통과되면 **기사**를 씁니다. 편집장은 마감일을 정해서 그 날까지 기사를 모읍니다.

기사를 다 모으면 다른 사람의 기사를 한 개씩 맡아서 **교정**을 봅니다.

편집부는 교정된 기사를 인쇄소에 가져가서 각 **신문의 지면에 배치**합니다.

인쇄된 신문을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2) 신문 구성

- **학교 소식** :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나 행정상의 변화 등을 다룹니다.
  ex) 의전원 제도, 새로운 학장님 취임, 의과대학 축제 등

- **사회** :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나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ex) 광우병 파동,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미국 대선 등

- **문화** : 영화·연극·책 소개와 감상에서부터 음악비평까지 다양합니다.
  ex) 충무로 영화제 감상, 시 감상, 패션 경향 분석

- **기고와 연재** : 광혜학보 기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사를 싣는 공간입니다. 연재 기사도 있습니다.
  ex)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는 기고, 자기만의 독특하고 마니아(mania)적인 취미를 소개하는 기고, 연재만화 '신천지', 연재 일기 'Jane's diary'

- **기타** : 로직, 광혜 사설, 인물이나 기관 인터뷰, 다양한 앙케이트 기사 등이 있습니다.
  ex) 암 고치는 암 환자, 이희대 교수님 인터뷰, 다른 과 학생이 바라본 의대생의 이미지 앙케이트, 의대생의 연애 패턴 앙케이트

(2) 멤버

광혜학보는 학보장·편집장·회계 각각 한 명씩과 편집부, 그리고 다수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과 2학년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며, 광혜학보의 임원은 본과 2학년 중에서 선출합니다. 현재 광혜학보의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보장:
편집장:
회계:

(3) 신입생 선발

광혜학보의 신입생 선발은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문 기자로서 활동하고 싶을 때 광혜학보의 선배에게 말하면, 그 다음 편집회의부터 광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싸이월드 홈페이지 : SESIN.CYWORLD.COM

3. 광혜인(=광혜학보 동아리원)이 될까 말까 망설이는 당신에게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 세상에는 무슨 문젯거리들이 그리도 많은 건지, 우리 사회는 여러 논쟁들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끄러움도 잠시, 의대 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만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됩니다. 내가 앉아 있는 책상 위의 세계는 너무도 조용합니다. 내 의견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법도 잊어가고, 의견을 정립하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나에 대해, 내가 속한 학교에 대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을 당신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 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낼 차례입니다.

* 첨부된 만화는 광혜학보의 연재만화인 '신천지'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음악동아리

노 래 세 상

Q. 노래세상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A.. 노래세상은 의과대학 음악동아리로써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는** 동아리입니다. **노래 뿐만 아니라 반주 또한 동아리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등의 밴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Q. 노래세상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노래세상의 활동은 크게 학기 중 활동과 방학 중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기 중 활동으로는 정기적인 노래(합창) 연습과 조별로 노래 실력의 자웅을 겨루는 학기 중 세미나,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여러 친목행사, MT등이 있고 방학 중 활동은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활동의 핵심인 노래의 장르는 대중가요, 발라드, 락, 합창, 뮤지컬곡, 댄스 등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면 장르에 상관없이 모두 연습곡, 공연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노래세상 정기 공연은요?

A.. 정기 공연은 방학 중 한 달 정도의 연습을 거친 후 열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29회의 정기 공연이 열렸고, 오는 2009년 **2월 22일 일요일에 30회 정기공연** 이 열리게 됩니다.

매 정기 공연에는 주제가 있는데, 노래세상에서는 그 주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관객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 곡의 장르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이 없고, 합창곡과 개인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동아리원들과 합창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솔로곡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주 또한 동아리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흥미 있는 악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선배에게 배워서 공연 때 함께 연주할 수 있습니다^^

Q. 노래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A. 예과장 : 08 하재형 010-5323-6234
회 장 : 06 최병일 016-796-7799
전화나 문자주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농구부

http://home.freechal.com/severancebasketball

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리는 세브란스 농구부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67학번 설준희 교수님께서 창단하신 이후로 45년동안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역사 깊은 동아리입니다.

현재 연세대 체육과 강사로 계시는 문곤성감독님의 가르침 아래, 선수 30명과 매니져 17명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졸업하신 OB선배님들께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농구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이름처럼 농구가 가장 주된 활동입니다. 농구연습과 대회참가를 하는데요, 가장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대회는 여름에 서울시의 8개 의과대학이 참가하는 8개의대 대회로, 작년에 아쉽게 준우승을 하고, 우승을 목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월에 성균관대의대에서 개최하는 10여개의 의과대학 농구부가 참여하는 성대의대배 농구대회, 그리고 연세대 내의 모든 농구동아리가 실력을 다투는 총장배, 예과생끼리 출전했던 8개 의대 예과대회&이과대배, 서대문구청이나 기타등등의 외부대회 출전 등 꾸준한 대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 하는 연습으로는 1주일에 한번 있는 연대 체육관에서 하는 정기연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공대코트에서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꼭 연습만이 아니라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대코트에서 농구를 즐기기도 합니다. ^^

그리고 여름대회 직전에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3박4일 정도의 합숙훈련을 갑니다.

이전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작년, 재작년에는 감독님을 통해 신림고등학교로 합숙을 가서 농구실력도 키우고, 실제 선수들에게 배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농구외에도 당연히 동아리 사람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연습끝나고는 같이 밥도 매일매일 먹으러 가고, 수많은 술자리도 갖곤 합니다.^^

농구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신입생환영회, MT, 착복식 등등의 행사들도 당연히 하고있구요.. 서로 몸싸움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보니 선후배관계가 엄격하지 않고 친근하다는 점도 농구부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농구를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고등학교 때 동아리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아무래도 3:3이나 4:4같은 반코트 농구를 주로 하셨을 텐데요.. 정식 농구동아리인 만큼 5:5 정식 경기를 위주로 하고, 이전에 했던 농구와는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더 더욱 농구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선배님들도 많아 농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나중에는 재밌게 경기를 뛸 수 있게 됩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팀원들이 협동해서 연습하고 경기를 뛰는 과정에서 농구실력도 키울뿐더러 동기와의 끈끈한 우정, 그리고 선후배간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부라고 남학생만 뽑는 것이 아니고, 매니져도 뽑고 있습니다.

매니져분들은 여러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칙칙한 자리를 빛내주기도 하고, 농구시합할 때 응원도 해주시고, 농구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농구를 즐기거나, 배워보고 싶거나, 좋아하시는 여학우분들도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시거나, 잘하시건 못하시건 즐길 줄 아시는분, 농구를 배워보고 싶으신분, 그리고 농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짜릿한 순간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 농구부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연습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같이 재미있고, 즐겁게 농구해서 같이 우승컵을 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장 본과2학년 임경한
010-9337-3427

세란 미술반

09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부만 하던 고등학생 시절은 이제 가버리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죠? 대학생활에서 -특히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동아리활동이에요. 자, 지금부터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아리인 **세란 미술반**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세란미술반이란?

세란 미술반은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196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주욱~ 이어져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이 40주년 이었네요^^ 이제까지 공부에 짓눌려 펼쳐보지 못했던 미술에의 열정을 마음껏 쏟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세란 미술반은 그 열정을 이음새로 돈독한 선후배관계까지 유지하고 있답니다!

세란미술반의 활동!

1. 봄가을 정기미전

세란 미술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미술작품을 그렸으면 그 작품을 자랑할 시간을 가져야겠죠^^?

5월 중순에 있는 봄 미전은 예과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의대 동아리들의 공식 행사 중 신입생이 참여하는 첫 행사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3층 로비에서 열었는데, 환자분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서 예과생들이 부족한 그림실력에도 많은 힘을 얻었답니다.

2학기 초에 있는 가을 미전은 세란 미술반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 모든 세란 미술반 학생들이 그림을 출품하고, 또 졸업하신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까지 그림을 그리셔서 모두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가을미전**은 세란 미술반, 아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자랑입니다! 세브란스 본관 3층에서 열렸던 2008가을 정기미전은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 그리고 의료원식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사실 아주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오다가다 환자분들이 작품을 들여다 봐주시고 하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도 봄 예과미전에 찍었던 08학번 사진 입니다.

2. 세미나

미술을 못해서, 혹은 못한다고 생각해서 미술반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지... 하지만 고등학교 때 내신 점수를 깎아 먹던 미술을 떠올리진 마세요^^ '난 지금까지 미술엔 관심이 없었어!'하시는 분들도 문제없어요~ 사실 우리 미술반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세란 미술반은 세미나를 통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합니다. 학기 초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인 미술도구의 사용법과 유화 그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봄미전에 자신의 유화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요!

사실 이 예술, art라고 하는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물론 자신의 추구하는 바가 최대한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극사실주의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거면 그 어떠한 형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끄적끄적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것에서 작은 재미라도 느낀다면 그 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멋진 미술반원이예요. 부담없이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열심히만 그려준다면 그것만으로 OK!

3. 즐거운 엠티와 미전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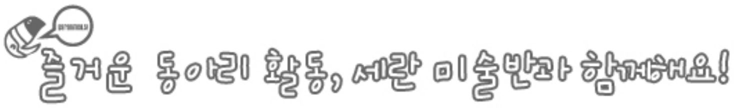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에서 엠티가 빠질 수 없죠^^? 미술반은 엠티로도 유명한데요. 여름, 겨울방학때의 스케치 여행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음 미전의 소재를 얻을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거에요. 학기 중 엠티는 일상에 지친 우리 의대생에게 즐거운 휴식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단체 생일파티와 불꽃놀이, 지칠 줄 모르는 게임 등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엠티를 통해 미술반 사람들만의 다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시회가 있을 때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서울시내 유명 박물관에서 열리는 미전탐방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세란 미술반 학

생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입니다! 작년에는 봄에는 반 고흐전을, 가을에는 렘브란트 에칭 특별 전시회를 참여했답니다!^^

 미술 실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미술반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과 열정, 즐거운 기대만 갖고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세란 미술반의 문은 항상 열려있답니다-

☺ 본과반장 김창신 : 010-6526-0681
☺ 예과장 김응남 : 010-6697-5457



S E N E M 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화동아리 세네마(SENEMA)는 Severance와 Cinema의 준말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영화를 통해 만나고, 함께 마음을 합쳐 영화를 만드는 그런 동아리에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처럼 화목한 분위기의 동아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해요^^

그럼 자세한 세네마의 활동을 소개해드릴게요~^^

<세네마 활동 소개>

1. 영화 제작

일 년에 한두 번 방학동안 단편 영화를 만듭니다. 방학 전에 계획을 세워서 방학 때 촬영하고 편집을 합니다. 시놉시스,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콘티작업, 촬영, 편집까지 직접 영화를 제작합니다. 세네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직접 영화제작에 참여하면 정말 재미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답니다.^^ 늘 보기만 하던 영화, 직접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직접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 세네마에서 잡으세요!!ㅋㅋ

2. 영화제 참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정도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 매년 독특한 영화들로 눈길을 끄는 전주국제영화제. 부천에서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뉴스에서 이런 영화제들의 소식을 접하고 한번쯤 가봤으면 하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세네마에서는 중간고사 후 4월 말에는 전주로, 여름방학 중에는 부천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부산으로 영화제 참가를 위한 엠티를 갑니다.^^ 영화제 참가는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도 보고, 동아리 사람들과의 친목도 도모하는 세네마의 주요 활동 중 하나에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전주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부산의 해안가에서 같이 즐겁게 뛰어노는 사이에 세네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에요.^^

3. 세란영화제 진행

가을에 있는 의대축제(세란제)기간 중 학생회와 함께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일정한 주제를 정하여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국내에 미개봉된 작품 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세네마에서 직접 제작한 영화도 이때 함께 상영한답니다.^^

4. 영화정모 및 세미나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면서 놀아요~ㅋㅋ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보고 싶은 영화를 정해서 보고 동아리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거죠.^^ 종종 세미나를 통해 영화 촬영,

편집에 대해 배우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네마 가족 되기>

누구나 처음 학교에 입학하여 동아리를 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선택의 갈래 앞에 서 계실 줄 압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아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꼭 세네마에 들어오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꺼에요~^^ 세네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예과장 08학번 서정기 (010-5164-7115)
예과총무 08학번 김보람 (010-4178-2358)

<2008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세 란 극 회

박수소리와 함께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곡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무대를 눈부신 조명과 그보다 강렬한 관객들의 시선이 밝힌다. 긴장감으로 터질 것만 같은 심장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불러내어 그 사람으로서 숨쉰다. 나는 사라졌지만 나는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다. 나는 '열정' 이다.

세란극회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연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세란극회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연극에는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과 '사람'입니다.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연극은 나와 나 아닌 다른 영혼이 되고,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연극은 어느 예술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는 예술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情)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음악 등을 배우면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지만 연극을 하면 무엇이 남느냐고도 합니다. 연극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사람이 남고, 잊지 못할 추억이 남는다고. 그 때문인지 세란극회는 큰 행사를 마치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또 우리는 술잔을 부딪칠 때 '애(愛)'를 외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에 세란극회는 매일 연습을 시작하고 끝날 때 모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한 마디씩을 합니다. 열심히 하자고, 때로는 수고했다고, 그리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깊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숙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할 우리들에겐 삶의 다른 어느 경험보다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연극이 불러일으키는 알 수 없는 열정이 사람들로 연극을 하도록 합니다. 연극에는 대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숱한 노력과 생각과 눈물이 얽혀있습니다. 세란극회는 적당히 연습을 하고 무대를 만들어 공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고를 위해 노력하고 그렇기에 세란극회는 최고의 동아리입니다. 새로운 세란극회를 만들어나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대사가 끝나고 무대가 어두워진다. 커튼콜을 위해 배우들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고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조명이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가운데 연극 속의 사람들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생을 마감한다. 그 곳에 한 때 내가 있었고, 내가 만든 무대가 있고, 또 언젠가는 내가 고른 음악이, 내가 설치한 조명이, 내가 입혔던 의상이 있을 것이다. 조용한 밤에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세란극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예전의 커튼콜곡이 흘러나오고 언제나처럼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 추억이라기엔 너무 강렬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 아련하게, 너무나 아련하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리 세란사진반]

seran photo since 1971

09학번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올 새내기 대학생활에 가슴이 설레 올 여러분을 생각하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네요! 이것저것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 다니느라 매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곳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적어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 활동이 의과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남다릅니다. 많은활동및행사들, 즉 학기 및 방학 중 각 동아리 활동, MT, 예과추방식(흔히들 예추식이라고 해요^^), 해부학OT, 착복식, 졸업생 환송회 등의 각종 행사들이 동아리 내에서 진행 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갓 입학해서 아직은 서먹서먹하기 쉬운 과 친구들과의 우정도 동아리활동을 통해 쌓아나가게 될 거구요. 자 그럼~! 그 중 단연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동아리인 저희 **세란 사진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할게요! ^_^

1. 세란 사진반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 흑백필름 사진을 찍고, 현상, 인화를 내 손으로 직접!!

저희 세란 사진반은 의과대학의 가장 오래된 동아리 중 하나로서(since 1971!!) 기본적으로 **흑백 필름 사진**을 찍는 동아리입니다. 즉, 나만의 사진기로 세상의 빛을 모아 **필름**에담고, 나타내고자 하는 대로 **인화지 위에 표현한답니다**~!! TV나 영화내용 중, 깜깜한 암실에서 이상한 액체에 담겨있던 사진을 꺼내 물을 뚝뚝 흘리며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필름을 맡겨서 찾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거 내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같은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느낌이 180도 다른 사진을 멋지게 인화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암실**에서 해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ㅁ^ 컴컴한 암실에서 인화도 하고 치킨도 먹고 연애도(?!?!)

- 세란 사진반은 크게 2개의 사진전 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1) 9월에는 **세란 사진반 만의 독자적인 사진전**을 엽니다.

모든 행사 중에 가장 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장을 좌악 빼입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멋지게 오프닝도 하구요^^

2) **3월**에는 서울 시내의 8개 의과대학(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의 사진반들이 모이는 **'서울시내 8개 의대 연합사진전'**이 열리게 되죠. 올해는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주최를 맡게 되었답니다

▲ 여름 사진전 갤러리의 풍경

3) 9월에 사진전을 열었던 작품을 다시 9월 말 즈음해서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 전시하기도 해요. 지인이 아닌, 환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의 작품을 유심히 감상하는걸 보면서 또 다른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학기 중의 학업의 빡센 일정을 피해 주로 방학 때 활동, 그리고 사진여행**

그럼 사진전을 열기 위해서는 무얼 해야 할까요? 딩동댕~! 사진을 찍어야겠죠~^^;;;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 촬영을 하는 **출사(출장사진)는 주로 방학 때**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동아리 방에 모여서 함께 떠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곳을 많이 가구요~ 특히 한강불꽃축제나 연등축제 같은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리면 매년 그래왔듯이 출사를 간답니다. 출사 후에는 **맛있는 저녁**과, 가끔, 좀 자주 **뒤풀이**도 하면서 선후배 간에, 그리고 동기간에 우애를 다지곤 합니다.^^

아앗!! 서울에서만 사진을 찍으니 금방 질릴 거 같다구요 ?_?

▼ 2008년 사진여행 때 다들 밀집모자를 쓰고

짜잔~~!! **여름 방학에는 3,4일간의 사진여행**을 떠납니다~

작년 여름에는 승합차 3대(주로 스타렉스..)를 빌려서 서해안으로 2박3일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나네요~(히히)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동기나 선후배간에 정이 열꺼풀(?!) 쯤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지요~ ^_^! 신나게 해수욕도 하고 맛있는 그 지방 음식도 먹을 수 있답니다!

2. 세란 사진반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아주 좋은 질문! 물론, 카메라가 있어야 겠죠^^ 그런데 주의할 사항! 작품 사진은 흑백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출사를나가직접찍은필름을동방에있는암실에서직접현상, 인화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사진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Q : **사진에 관심은 있는데 나는 필름 카메라가 없다..?**
A : 카메라 까이꺼, 빠삭한 선배들이 저렴한 가격에 예쁘고 성능 좋은 녀석들로 팍팍 골라 드립니다^^;

Q : **난 카메라라곤 폰카 말고는 써 본 적이 없는데?**
A : 저희도 신입생 땐 그랬답니다-_-;; 일단 들어와서 SLR카메라에 대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주는 창인 렌즈, **내 손으로 직접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필름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될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필름카메라만 고집하느냐...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ㅁ< 정말 멋있는 DSLR작품도 꽤 여러 작품을 전시하는데 다만 원칙은, 필름으로 사진 작품을 완성시킨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http://blog.naver.com/01073346758

3. 왜 사진반인가?!

사람들은 왜 사진을 찍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싸이 홈피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아니면 셀카로 담은 자신의 모습을 올리시나요?^_^ 그것은 바로 사진이순간을영원토록잡아놓을수있는가장좋은매체이기때문일겁니다. 오래 간직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훗날 졸업해서 의사가 되도,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욱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진반을 따라올 동아리는 없을 겁니다! 멋진 풍경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 집안에서 찍은 정물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자신의 얼굴을 극미화시킨 셀카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게 어때요??^ㅁ^

4.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_?

- 사진반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seranphoto.com>** 하지만 회원제라...쩝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010-9261-2263(본2 김민지)**이나 **010-8701-2595(본1 송명승)**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빠삭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_^/
그럼 동아리 소개식 뒤풀이에서 보게 되길 기대하면서... **- SERAN PHOTO -**

Severance Orchestra

http://www.severanceorchestra.com

안녕하세요? 먼저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의대 생활에 걱정이 많고 또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재밌고 훌륭한 동아리인 '세브란스 오케스트라'를 소개해 볼게요. 혹시 음악을 좋아하세요? 아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오케스트라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깊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이 안에서 맺게 될 거에요. 그럼 이제부터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세브란스 오케스트라란 어떤 단체인가?

오케스트라란 우리말로 관현악단이죠. 관악기와 현악기 주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맞춰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1년에 두 번 갖는 연주회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28일(예정)에 보시게 될 신입생을 위한 봄 연주회와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가을 정기 연주회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마 2월 28일(예정)에 하는 연주회를 본다면 그 멋진 모습에 여러분들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큰 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동아리라고 할 수 없겠죠~ 연주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형성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이니만큼,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연습하고 고생하는 동안 현역단원들과 소속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에 의대생들만으로 음악활동을 하기는 좀 힘든 점이 있죠. 그래서 의대생으로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음대생이나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 배움을 얻고 친분을 쌓기도 합니다

2.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들 수 있다?

많은 신입생들이 하고 있는 오해일 겁니다. 여러 오케스트라와는 다르게 세브란스 오케스트라는 연세대학교 의대생으로만 현역단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악기를 잘하는 신입생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학번에서 오케스트라에 들어오는 신입생 중에 악기를 배우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전에 다뤄보았던 악기와는 다른, 새로운 악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악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악기들을 직접 배우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지는 오케스트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세브란스 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중에서 현역 단원의 비중이 높으면서 실력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오케스트라인 유포니아의 모체가 바로 우리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이기도 하죠. 저희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잘해서 연주회를 갖는 동아리가 아니라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연주회를 갖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성실히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아리입니다

3. 연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답지 않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아주 적게 하고 그런 실력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우리 오케스트라는 긴 역사를 통해 다른 곳과 다르게 우리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였고 효율적인 연습을 통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개인 연습과 레슨을 중심으로 총연습이 틈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습은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방학 때에는 각각의 악기별로 파트연습이 진행되고, 이 파트연습에서 연습한 것을 모든 악기가 함께 연습하는 총연습 때에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더욱 완성도 있게 다지게 됩니다. 이 때 본과생 단원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운영되는 관계로 동아리 일정을 본과 일정에 맞추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과생들보다 긴 방학을 가진 예과생들은 방학 초반에는 개인 연습을 하고 이후 음악캠프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 곳 음악캠프에서는 힘든 일정이지만 합숙을 하면서 함께 음악을 완성하고 친목을 다지게 됩니다.

4. 어떤 악기들이 있나요?

크게 오케스트라는 현파트와 관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다 시피 현파트에는 바이올린(1st와 2nd으로 나눠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나뉘게 지구요, 악기가 작을수록 높은 음역을 담당하면서 조화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현 파트가 절대 빠질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관파트는 목관과 금관으로 또 나뉘는데 목관에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그리고 금관에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과 같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관파트는 각각의 악기들이 모두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로 나와서 많은 재미를 느끼게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택하든지 모든 악기들 고유의 소리와 재미를 느낄 수 있기에 처음 시작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재밌을 것 같은 악기를 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오는 2월 28일(예정)에 열리는 신입생들을 위한 봄 연주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연주회인 만큼 많이들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멋진 공연을 많이 감상해 주시구요~ 오케스트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브란스 오케스트라 08학번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주진우였습니다.

인스펙터 신재승 (06학번) 016-753-1962
예과총무 주진우 (08학번) 010-4849-4605

SEC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유일의 *Rock* 밴드 서클 *SECE*입니다.

SECE 활동

*SECE*의 주 활동으로는 3월과 9월에 정기공연이 두 번 있고, 동소식 공연, 연세대학교 축제인 대동제 공연, 이과대학 축제인 경천제 공연, 예과연합공연, *home coming day*, 의과대학 축제인 세란제 공연의 *opening* 등 많은 공연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11월에 파주의료원 공연에도 참가했습니다.

SECE 공연 방식

0.평소에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는다.
1.음악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짠다.
2.한 달 정도 총연습: 모든 팀이 모여서 합주와 개인연습을 한다.
3.공연

SECE 동방 및 장비

악기 : 기타앰프2, 베이스앰프1, 보컬 및 키보드앰프1, *Drum set*, 마이크 2, 마이크 스탠드2, 키보드1
침구류: 소파2+이불
기타: 녹음용 컴퓨터1, 똘똘이앰프 다수

모집 파트

보컬,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 FX

SECER 모집 방침

*SECE*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막상 밴드부라는 동아리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새내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를 잡아본 적조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王열정**입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이 있으신 분만 *SECE*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SECER*가 되면 연주 실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력있는 많은 선배님들 중 대부분은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SECE*에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SECER*가 되신다면 모두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본인의 '열정'이 없으면 안됩니다. 음악에, *Rock*에 열정이 있는 새내기분들은 *Rock Band SECE*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www.yonseisece.com*

문의

단장: 김용희 010-7272-1838 jadon87@hotmail.com

총무: 김근유 011-9174-9678

예과장: 유문규 010-9881-2557

08학번장: 백승호 010-5381-7856

P.S.

2009.2.25 수요일 늦은 6시에
신촌 퀸 라이브홀에서
SECE의 제 14회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구부 Severance Blades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야구부, Severance Blades입니다. 야구부의 팀명인 Blades에는 의과대학 학생을 상징할 수 있는 수술용 칼날이라는 뜻과 위풍당당한 사내, 멋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년 전에 야구부가 해체되어 한동안 명맥이 끊긴 상태였으나 작년에 야구부를 부활시킴으로써 세브란스 야구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있는 동아리입니다. 현재 생화학-분자생물학 교실의 김재우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세브란스를 대표하여 연세대학교 교내 리그인 독수리 리그, 의과 대학 야구부들의 리그인 메디칼 리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1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추후 확정)에 연세대학교 야구장에서 집행부인 본과 2학년의 지도 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야구부는 스포츠를 통한 부원들 간의 건전한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열정적인 훈련을 하며 야구 기술의 향상과 기초 체력의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야구는 신체의 힘과 기술 뿐만 아니라 작전과 같은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의과 대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운동입니다. 야구부를 관리해 주실 매니저 여러분들의 지원도 환영합니다.

작년에 다시 시작한 관계로 아직 완벽한 틀이 잡히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야구부에서 함께 전설을 만드는 주인공이 됩시다.

-야구부 회장단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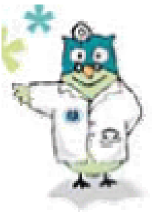
홍승수: 010-3936-1986

이준복: 010-9096-6092

의료계의 소금과 같은 공동체

CMF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연세 의치간 기독모임



2004년 연세의치간 진료봉사 obinlove@freechal.com

한국누가회(CMF)는 의료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의,치,한의사들과 의,치,한의대생들로 구성된 기독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교파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운동체입니다.

Q & A

1. CMF는 무엇이고 의치간 기독모임은 무엇입니까?

의치간 기독모임이란 연세대 내에서 의과대학 CMF와 치과대학 CMF, 간호대학 NCF가 연합한 연세대학교 내의 모임입니다. Campus와 연세 의료원의 복음화를 꿈꾸는 모임입니다. CMF는 우리 의과대학이 속해있는 선교단체의 이름입니다. CMF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이 모임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셈이지요. ^^;

2. CMF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CMF는 크게 학기 중과 방학 중 행사로 나누어 집니다. 학기 중에는 주로 campus사역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화요일) 세브란스 병원 6층 대예배실에서 LGM(large group meeting, 예배)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GBS(group bible study)를 하면서 동기들과 교재를 나누고 또 선배들에게 성경에 대한 양식과 위장관으로 들어가는 양식까지 모두 얻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MT를 비롯한 소그룹 모임들이 결성되어 자칫 외로울 수 있는 대학 생활 중 사람들과 관계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 가는 공동체 입니다.

뿐만 아니라 CMF는 전국적인 공동체 입니다. 방학 중에는 전국 수련회를 5박 6일간 실시하여 전국에서 나와 같은 고민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함께 교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시간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캠퍼스에서 대한민국의 소외 받은 지역들로 의료 및 학생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소외 받은 계층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과 영을 회복 받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중훈련학교를 통해 성경과 사회문제들을 더욱 깊이있게 고민할 수 있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으로 떠나는 비젼트립을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젼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3.교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학교라면 CMF는 학원입니다. CMF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이죠. 즉 CMF는 교회를 도와 개개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며 캠퍼스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독교인만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CMF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부터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까지 누구나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전국 CMF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국 CMF 에서는 매번 방학마다의 수련회를 비롯해 신입생 학교, 개인 성경 연구 학교, 세계관 학교, 성경적 의료 연구 학교, 리더십 학교, 북녘사랑 학교, 생태 의료 학교, 생명윤리 학교 등 우리가 원한다면 방학동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각 소그룹인 생명사랑, 북녘사랑, 밝누모, 영상팀, 찬양팀 등 각자의 비전과 꿈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하기 위해 공연 동아리를 가입려던 김모 선배, 박모 선배님들은 오히려 CMF찬양팀을 통해 악기의 달인이 되셨다죠? 암튼^^ 생명 윤리에 대해 관심있으시면 생명사랑으로, 북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북녘사랑으로, 의료제도 개선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있는 분은 밝누모로 오세요

CMF라는 모임에 대한 나의 아주 주관적인 견해

양홍석 선배님

1. CMF는 열린 모임입니다.

아무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예과 2학년, 몇 번 성경공부를 같이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나를 주소록에 올려주었습니다. T-T 그리고 CMF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 CMF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CMF에는 크게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쁨.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쁨.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3. CMF에서는 참된 의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가 나의 집과 같은 곳이라면 CMF는 직장입니다.
교회가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면
CMF는 기독 의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우린 구체적인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4. CMF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로 모이게 되는 대학에서의 동아리.
하지만 이 모임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학교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둘째, 주님 안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고
셋째, Vision을 찾고 꿈꾸는 것.

5. CMF는 나누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사랑...
그 사랑을 같은 교실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 자신을 나누어줄 때,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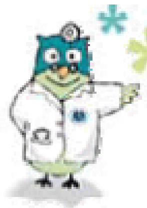
09학번에게 쓰는 편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자기 내면의 갈등 앞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복음이 지시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신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 문제투성이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CMF 구성원 연락처 (시간 많은 인물만 올립니다. ^^;)

본3 : 홍준표형제 (016-856-8093) 정해림자매 (010-4506-1923)
본2 : 최성은자매 (010-3958-0038) 박지훈형제 (011-333-9182)

연세 의치간 기독모임 커뮤니티: ysbelt.cyworld.com
이곳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의·간 연합 봉사 동아리 의청(醫靑)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의학도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서 "왜 내가 의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에 대한 이유를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의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찌 저찌 하여 의대에 들어오긴 했는데, 의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다. 간지 나는 의사라면 하얀 거탑의 장준혁 뿐이다.'라는 분들 없으신가요? '의대에 들어 왔으니 대충 졸업하고 전문의 따면 돈 잘 벌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고요?

저희 의청에 오시면,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의료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환자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종로3가 지하철 역 내에서 노숙자와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본진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 저희 의청 출신의 선배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혈당 체크, 혈압 체크, 예진, 접수, 약국 등입니다. 직접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손길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분과 마주 앉아 보내는 시간은 간접 경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제대로 느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② 농활,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화려하다. 멋있다. 안락하다.'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 정립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저런 삶을 향해 달려간다면.. 과연 행복해 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주변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고 경험하며, 보다 다양한 시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더욱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청은 여름 방학마다 **농활** 활동을 떠납니다. 고된 밭일, 불편한 잠자리, 내리쬐는 태양... 결코 편하기 만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감동과 행복, 깨달음과 보람감 또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몸 한 번 빡시게 굴려서 머리를 좀 더 넓고 풍부한 생각으로 채워보는 거에요!!

③ 동아리는 역시 사람 만나는 재미겠죠?

의청은 간호대와 함께 하는 연합 동아리입니다. 양 쪽에서 따로 신입생을 받아 함께 활동하게 되는 거죠. 의대 특성상 중앙 동아리 활동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른 과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나 흥미롭지 않으세요? 물론 의대 내에도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환경을 가진

구들, 그것도 많은 시간 함께 할 동아리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일부 몰지각한 몇몇에 의해 '의청은 연애하러 들어가는데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실 텐데, 그럴 생각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미팅이나 시켜드릴게요ㅋㅋ.)

의청, 언제나 여러분께 활짝 열려있답니다!! 06학번 기장 김기욱 016-9207-4886

이브닝 콰이어(Evening Choir)

We are evening choir!

의과대학, **간호대학** 연합동아리 **이브닝 콰이어**입니다.

1960년, 예비 의료인이지만 직접 환우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고민 끝에 화장실 청소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병동에서 환우 분들께 찬양을 불러 드리게 되어 그 음악 봉사 활동이 5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운딩 : 매주 금요일 세브란스 병동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심한 병동에 찬양이 울리면, 병실에 계시던 환우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위로를 받고 함께 찬양을 하시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눕니다.

★가을 정기 발표회 : 매년 가을,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많은 관객들을 모시고 찬양의 축제를 엽니다. 합창, 중창, 워쉽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음악과 함께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즐거운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사진으로 조금 살펴볼까요?

We are evening choir!

We are evening choir!

We are evening choir!

(위에서부터)
신입생 환영회 /버스데이파티
가을 정기 발표회
아카펠라 성가제**<u>금상</u>**(08)**<u>대상</u>**(07)
엠티 /김치파티

-이브닝콰이어는 사랑입니다. 이브닝콰이어는 가족입니다.-

이 혁(본2) 010-9113-8328 , 전민아(본2) 010-7708-1504
최태양(본2) 010-6342-6975 , 서장현(예2) 010-5159-6481
전병남(예2) 010-4468-5563 , 주현우(예2) 010-4156-6775
동소식 후에 바로 뒤풀이가 있습니다. 위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축 구 부

Severance Soccer Team

기나긴 수험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 새내기 09학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세브란스 축구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1. 세브란스 축구부의 연혁은??

- 96년 12월 세브란스 축구부 탄생
- 99년 10월 이과대배 우승
- **2000년 메디컬 리그 우승**
- **2001년 5월 총장배 우승**
- **2001년 9월 정기 연고전 연세대학교 아마추어 축구팀 대표로 출전**
- 2002년 5월 총장배 16강 진출
- **2002년 9월 메디컬 리그 우승**
- 2002년 10월 이과대배 우승
- 2005년 5월 총강배 4강 진출
- **2005년 6월 퓨마배 서울 권역 대회 우승**
- 2006년 10월 이과대배 우승
- 2007년 5월 총장배 8강 진출
- **2008년 전국 의치한 메디컬리그 3위**
- 2008년 하반기 이과대배 우승

2. 세브란스 축구의 특징은???

1) 선배와 후배의 돈독한 관계

보통 운동부하면 떠올리시는 것은 수직적인, 엄격한 선후배 간의 관계이지만 우리 축구부는 같은 팀으로써의 협동심을 중시합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희 동아리는 의대 내의 모든 동아리 중에 최고의 팀웍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친해지다 보니 후배가 선배를 놀리고, 선배 엉덩이를 툭툭 치며 '잘해봅시다'를 외치는 등 하극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선배들은 그저 '허허'하고 웃어넘기고 만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은 상상이 가시나요? 축구부에 들(

오셔서 본과 선배의 엉덩이를 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2) 뛰어난 성적

위의 연혁에서 보듯이 저희 축구부는 그 동안 거의 모든 출전대회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렇듯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책임학번에 훈련부장이라는 훈련 담당자를 두어서 매주 주말에 훈련을 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함과 동시에 많은 A매치로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학기 중의 연습 외에도 저희 축구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전지훈련을 다녀옵니다. 3박4일동안의 오전 오후의 축구를 통해서 팀웍을 더욱 다져나갑니다.

3) 즐거운 연습

저희는 항상 성적만을 추구하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모두가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합니다. 그저 축구만 좋아하면 말이죠. 그래서 연습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슈팅연습과 미니게임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덕분에 부원들의 참여율도 매우 높습니다.

4) 매니저 시스템

매니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니저의 할 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우선은 첫째로 A매치와 같은 중요한 경기의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후에 저희의 연습에 반영되어 축구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초석이 됩니다. 둘째로는 공지사항을 부원들에게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한명의 매니저가 한 학번을 담당하여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셋째로 축구부의 회비를 걷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입생 1학

기 때는 회비가 없으며 2학기 때부터 회비를 걷게 됩니다. 이 회비 수거의 역할을 매니저들이 맡게 됩니다. 넷째로는 축구부의 중요 행사들의 진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축구부의 행사인 각종 A매치 뒤풀이, 착복식, Homecoming Day, 예추식과 같은 큰 행사들에 참석하여 자칫 넘어가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며 행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부에 대해서 주절주절 늘어놓기만 했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만은 자신있습니다. 축구를 진정으로 좋아하신다면,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사귄 친구, 형 동생, 오빠 누나 언니 사이를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저희 축구부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란문학회 '타름'에서 보내는 편지

제가 이 글을 쓰는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일을 보러 밖으로 나왔더니, 오늘 졸업식이 있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몇 년 전의 제 모습이 자연스레 스쳐갑니다. 저도 그 때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돌아다녔죠. 어항에 있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바다를 한껏 헤엄치는 것처럼 말이죠.

졸업을 뜻하는 commencement는 그 이면에 '개시, 시작'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졸업과 동시에 또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는 여러분에겐 꼭 맞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작'은 예와는 다릅니다. 졸업을 통해 바다로 나온 고기는 처음엔 자유로움을 느끼다가, 자유로움 뒤편의 광막함을 하나둘씩 알게 됩니다. 大학생이라는 타이틀 속에 가려진 작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넓게는 사회적 책임감, 좁게는 개인적 허무함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도 가이드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결점으로 돌아옵니다.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고 눈물을 흘려도 방향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할 뿐입니다. 혼자서 방황한다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미분하고 달달 외워야했던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문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런 방황만이 이야기인 것도 아닙니다. '뉴하트'의 이은성도, 밤에 잠 못 이루는 고독도, 처음 간 홍대 클럽도, 여러분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이어리도 좋은 이야기이고 문학입니다. 이야기로서 문학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히키코모리들만이 영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 '타름'은 1960년 시인 마종기 선배님 등에 의해 「세란문학회」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동방 문에 달려있는 낡은 나무 문패가 말해주듯, 우리 동아리는 올해 49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지하 시인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두 글자를 따서 '타름'이란 이름을 또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주가 되는 동아리의 성격에 비유적으로 매우 잘 부합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타름'이란 이름을 이용하여 우리는 '○름'의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바름', '여름', '기름', '샤름', '푸름' 이런 이름들이지요. 저는 '찌름'입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세미나라는 그 모임에서 우리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만화, 혹은 자유로운 한 이야깃거리를 정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상대를 찾지 못해 가슴 속만 꽉 채웠던 이야기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 된답니다. 때로 연애나 진로 등 열띤 이야기가 이뤄지는 날이면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세미나는 우리 '타름'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화전은 또 다른 우리의 큰 행사입니다. 서로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시나 글을 이야기하고, 오손도손 따뜻한 동방에 모여앉아 시화를 만들어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뽐내거나, 숨겨진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작년 가을, 귀여운 열쇠고리를 달았던 시화가 기억에 남는군요. 이번에도 좋은 시화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시화전에 낸 시나 그 외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작품들은 매년 가을에 「세란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됩니다. 50~60여편의 작품이 매년 출품되는 「세란문학」은 작년으로 34호가 발간되었답니다.

봄, 가을 MT와 여름, 겨울 합숙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강원도로 래프팅을 가기도 하고, 계룡산의 절경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온천에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도 하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러가기도 합니다. 합숙에는 아늑한 펜션과 가벼운 세미나, 밤을 하얗게 밝혀주는 이야기, 새로운 타름명, 그리고 '타름'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고급 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 그리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 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음주라는 압박감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아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야기이고, 술이 없어도 우리는 그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끈끈하기로 유명한 동아리입니다. 과음이 남기는 어색함이 적다는 점이 그 비결입니다. 장판이 깔린 따뜻한 동방도 그 끈끈함에 일조합니다. 찬 돌바닥에서 입식의 형태가 아닌 따뜻한 장판 위에서 좌식의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낮잠을 자거나 밤을 지새울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안에 내 집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따뜻함이란 반드시 히터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36.5℃가 활활 타는 난로보다 더 따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방, 나아가 우리 동아리에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따뜻함, 우리는 이런 따뜻함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멋진 commencement를 기원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본과 2학년 찌름 양시용

< 타름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란문학회장 찌름 양시용 011 – 619 – 7168
예과회장 이름 정윤정 011 – 9979 – 5133 >

테니스 부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테니스부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즐겁고 알차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대학생활에서 빼놓으면 서운한 것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베일에 가린 우리 테니스부의 좋은 점, 다른 동아리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테니스부의 일상

학기 중에 우리 테니스부는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합니다. 우선 예과생들은 오전 10시~11시쯤에 코트에 나와서 자유롭게 테니스를 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선배님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한답니다. 물론 신입생의 부담은 NO~! 훈련을 담당하는 본2 부장단이 코트에 오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은 자세 연습부터 시합까지 융통성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다함께 저녁식사 겸 가벼운 뒤풀이 자리를 가집니다. 선배들과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죠. 물론 학기 중에는 시험도 있고 기타 단체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테니스부 훈련과 겹치는 경우 혹은 비가 오거나 하면 아쉽게도 훈련을 쉽니다~^^

테니스부의 주요 행사!

우리 테니스부의 행사는 꽤나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알찬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지요. 먼저 우리의 라이벌(인척 하는^^;) 고려대 의대 테니스부와 친선 정기 교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와의 친선 교류전인 **연서전**이 있습니다. 또 예과생들은 **예과 연고전, 연서전**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매년 봄에는 **전국의과대학 테니스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것이 우리 테니스부의 영원한 목표랍니다!! (우승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최근에 성적은 8강과 16강, 32강입니다!) 또한 매 학기마다 **동문 테니스 대회**를 엽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저희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가까운 선배들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님과의 접촉도 가능하므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날 저녁식사는 정말 최고랍니다!! 가을의 의과대학 축제인 세란제 기간 동안에는 **세브란스배 테니스대회**를 주최하여 타 동아리 학생과의 접촉의 기회도 있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테니스부 행사의 꽃은 바로 **합숙**!! 방학 중에 3박 4일간 서울 근교의 테니스장을 찾아가 학기 중에 부족했던 훈련과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신입생들에게는 정식 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숙 기간 중에 랭킹전을 가져 동아리 내 최고 실력자를 가린답니다. 겨울 랭킹전의 순위에 맞춰서 다음해 **전국의과대학 테니스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력만 있다면 예과생도 출전가능하지요. 합숙이 왜 꽃인지는 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답니다!!!

이것이 연대 의대 테니스부의 특징!

우리 동아리의 정식 명칭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테니스부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1970년에 만들어졌고 벌써 서른아홉 번째 해를 맞고 있는 **역사 있는** 동아리입니다. 주된 동아리 모임은 '테니스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테니스 부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낯선 자유 속에서 무절제한 생활로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대학생활에서 잠시나마 운동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서 노년까지 즐길 수 있는 운동도 습득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 테니스부 만의 돈독한 선후배간의 정을 통해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과의 자유로운 대학생활, 본과의 엄청난 학습량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불규칙한 생활, 잦은 술자리, 이성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해를 거듭할수록 컨트롤할 수 없이 나오는 아랫배, 시험기간에 참을 수 없는 졸음들을 해를 거듭할수록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족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동아리에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테니스부와 같은 운동동아리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테니스가 좋은 이유~!!

첫 번째, 테니스는 매우 즐겁고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등을 이유로 중, 고등학교 시절 쉽게 할 수 있는 축구, 농구, 배구 등에 비해 테니스란 운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테니스는 아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금방 중독될 정도로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더욱 더 테니스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테니스는 다른 운동에 비해 쉽게, 오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의 경우에는 키, 스피드와 같은 타고난 신체적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테니스는 신체적 요소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여타 구기종목과는 다르게 **몸싸움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게다가 **평생스포츠**로써 젊을 때만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여학생도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테니스는 **여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응원과 동아리 일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아닌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말이지요. 실제로 저희 테니스부에는 여성부원들도 많이 있답니다. 테니스가 남녀노소, 운동신경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테니스부에 대한 오해??

① 테니스부는 테니스를 배운 사람들만 올 수 있다??

물론 아닙니다~! 테니스를 단 한 번이라도 쳐보고 들어온 사람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답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운동 신경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여자들도 테니스의 고수가 될 수 있답니다.

② 토요일이 아깝다??

토요일에 자신만의 시간을 못 가지게 되어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과생들에게 주말의 많은 시간은 오히려 무료함과 빈둥댐을 낳는 독이 됩니다. 단순히 '놀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친구들은 집이나 기숙사에서 빈둥댈 시간에, 평생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우고, 많은 좋은 선배,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좀 지나면 일주일 중 테니스를 칠 수 있는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은 어떻게??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세요. 본과선배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윗 선배인 예과부장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장 : 김태호 (본2, 011-9179-2640) 총무 : 김상아 (본2, 010-4564-5910)
훈련부장: 신재원 (본2, 016-313-0040) 예과부장: 서장현 (예2, 010-5159-6481)

테니스부 커뮤니티 http://www.freechal.com/sevtennis

테니스부 커뮤니티가 프리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글들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 의치간 연합 가톨릭 학생 동아리

포 도 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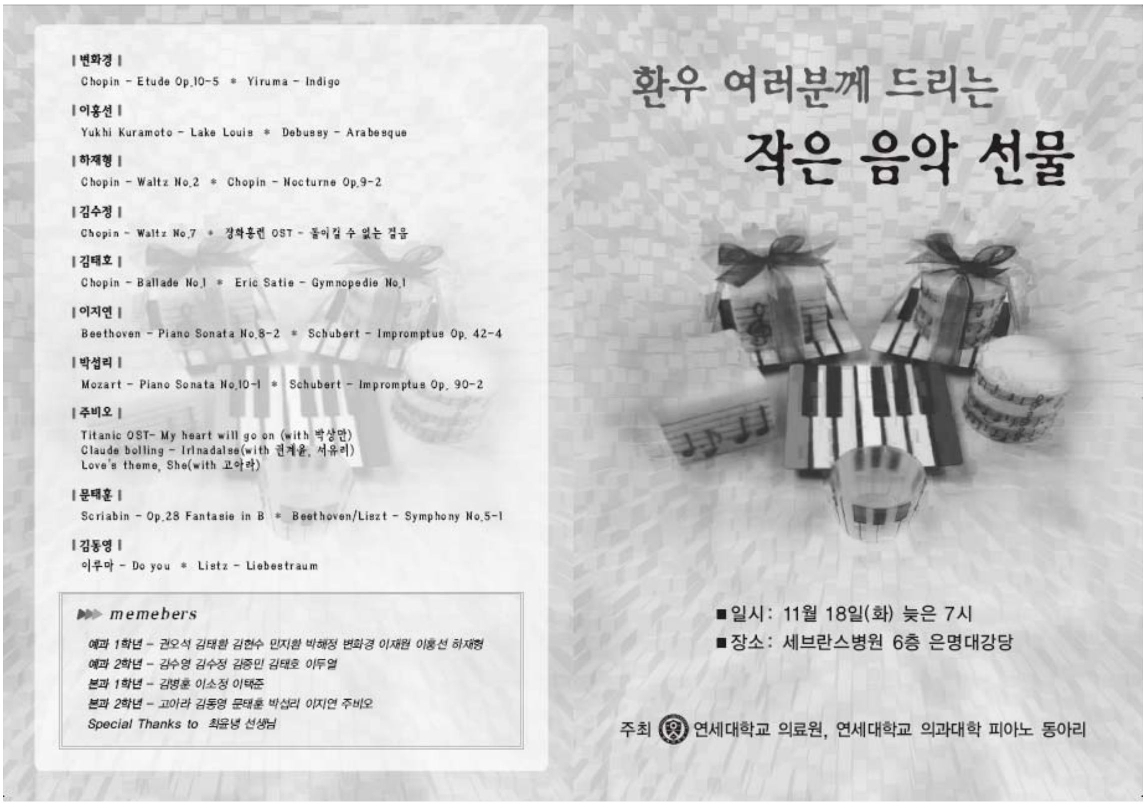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입니다!!

1992년부터 가톨릭 학생들끼리 뜻을 모아 결성 된 [포도나무]는 현재 재학생 회원은 50명 정도가 되고, 교직원 가톨릭 모임인 [등잔회]와도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모로 가톨릭 청년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신앙과 봉사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조화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포도알들은 학기 중에는 개강, 종강 미사 외에도 학년끼리의 기도 모임,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느님을 느끼고 알아가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 외에도 봄 MT나 가을 피정, 지도 교수님과 졸업한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통해 찬양과 나눔을 같이 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포도알들끼리 친해지고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매 해 방학 때마다 충북 음성 꽃동네 봉사를 다녀옵니다. 거기에 학기 중 활동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에 연세대 학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가천의대, 관동대, 울산대, 적십자 간호대 학생들과 같이 매주 약 3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는 라파엘 진료소에서 다양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인이 될 사람들으로써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진심으로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 분들의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해야 하는 것을 [포도나무]의 여러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신앙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선배님들, 동기님들, 후배님들과 우리와 함께 인연을 맺어가는 학교 밖의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볼 때 우리가 같이 느끼는 기쁨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이시든 비신자시이든 어떤 특정한 [포도나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 연락처 : 본2 윤다로 (스테파노) 010-9685-1234
- 포도나무 홈페이지 : http://podojuice.cyworld.com

피아노 동아리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기들과 같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아쉬운 마음은 그만 접어두고, 합격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브란스 피아노 동아리에서 예과장을 맡은 이홍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경이 바뀐 만큼 새롭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실 것으로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무엇을 해야 더 좋을 지 고민이 많으시겠지요? 그 고민들 중에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할 지에 대한 갈등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미술, 음악, 운동, 연극, 봉사, 문학 등 매우 다채로운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동아리는 바로 세브란스 피아노 동아리인데요, 이제 갓 돌잔치를 치룬 저희 피아노 동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 제 1회 피아노 동아리 가을 정기 연주회 팜플릿 >

♩ 활동 및 공연 내용 소개 !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동아리가 이제 첫돌을 맞았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세브란스 피아노 동아리는 작년 11월 18일에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를 테마로 해서 첫 공연을 열었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봄, 가을 두 번의 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봄에는 신입생을 위한 연주회, 가을에는 환우들을 위한 연주회를 주제로 해서 말이지요. 지난 공연에서 친

구들과 세브란스 병원 내에 계신 환우분들을 초대해서 많은 찬사와 격려를 받았답니다.
피아노 동아리라고 해서 피아노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공연에서도 팬플룻,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플룻 등의 여러 가지 악기와 협주를 했습니다. 공연 내용은 피아노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작은 실내 음악회'에 맞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저희 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공연의 동영상이 세브란스 피아노 동아리 클럽에 올라와 있으니 한 번 와서 들어보세요.
* 주소는 http://club.cyworld.com/seranpiano 입니다.

♪ 악기 실력은 어느 정도 ?

무대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악기실력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악기를 배워두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연습하거나 조금 쉬운 곡을 연습하면 되니까 동아리에 들어올 때 악기 실력이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를 배운 분들도 환영합니다. 실제 공연에서는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협주 공연이 정말 듣기 좋거든요 !
정말 중요한 것도 열정이고, 정말 필요한 것도 열정입니다.

♬ 특별히 다루는 장르는 ~

사실 특별히 다루는 장르는 없어요. 클래식에서 뉴에이지, 재즈에 이르기까지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공연 형식도 연탄곡, 독주곡, 협주곡 등 자유입니다. 혹시 이런 곡들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곡들도 소개해 드리고 '어? 이 부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노래도 정보 공유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희 세브란스 피아노 동아리는 공연동아리로써의 의미도 있지만 서로 음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 아직은 어린 신생동아리 /

의대에는 여러 전통 있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피아노 동아리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1년 동안 기본적인 체계는 잡아 좋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있고, 앞으로 선배님들과 신입생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정해나가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뼈대가 잡힌 상태에서 공연의 내용, 성격, 주제 등에서부터 연습의 체계, 동아리에서의 직책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모아 다함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동아리로써의 면모를 더 잘 살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이번 봄 공연,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는 3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 동아리 선택에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 피아노 동아리 예과장을 맡은 이홍선이었습니다.

예과장 이홍선 010-6372-2702

합창단 <Seran Choir>에서 보내온 초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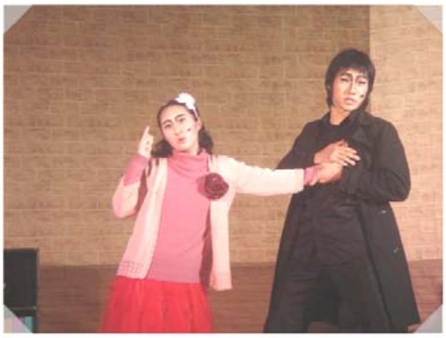
To. 시작의 설레임...
그 떨림과 함께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합창단입니다^^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들어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기쁘면서도 긴장되기도 하실거에요. 하지만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도 다 떨리고, 쑥쓰러워했었지만, 결국 다 저렇게 참, 잘~들(?) 지내고 있지 않아요? ㅋ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지 이 시간들을 즐기는 거에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담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동아리! 합창단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합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합창은 말 그대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합창일까요? 대답은 노~! 각자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면 합창이라고 할 수 없죠. 합창단은 모두 소리를 모아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된 화음을 느꼈을 때 그 감동적인 순간!

너무 즐거워서인지 춤도 절로 나온답니다 ^^;;
공연을 보러와준 관객들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합창단원 자신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순간들..

게다가 저희 합창단은 다른 합창단 들과는 다른 특별한 공연을 한답니다. 바로 아마추어 동아리로서는 최장기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창작 뮤지컬' !!! 저희는 배우부터 연출부터 극본부터 무대까지. 모든 것을 순수 창작으로 합창단원이 힘을 모아서 해내고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하죠.



모두가 함께, 어디서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을 만들어나가는 곳.

감동을 만들어 낼 줄 알고,
감동을 소중하게 기억할 줄 알고,
감동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바로 **합창단** 이고
합창단원 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야기를 더 적어보려해요 지금 약간은 수줍은(?)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선배의 신입생시절부터, 아니 그 위의 선배의 선배들부터, 내려오던 저희 합창단의 한가지 모토!

♡<u>합창단은 가족입니다</u>♡

늘 가족같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유쾌하고 가슴설레는 이야기.

그 속에서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

당신을, 환영합니다.

합창단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단장 : 박희준 010-9808-4737
새터 상주 : 이재원 010-7101-7235

편집 후기.......

제가 신입생일 때의 일입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지요? 그 때 새터 가기 전에 07학번에서 만든 2008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새터 자료집을 받았습니다. 보라색 표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자료였지요.(약간 급조했다는 생각이 드는 자료집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죄송해요ㅠ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만드는 자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자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출판을 하면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ㅠ) 작성시에는 조금 럭셔리하게 보였는데 출판하면 찌질하게 바뀔지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새터 자료집을 만들면서 07학번이 06학번이 만든 자료들을 많이 참조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저희도 그랬 지만 이 때까지 나온 새터자료집 중에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당연한건가요? 시대가 갈수록 자료집은 발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이 책자를 보시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1년 후 2010년 신입생을 위한 새터 자료집을 만드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08학번에서 자발적으로 써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많은 참고를 했지만 이 자료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했던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이나 자료들을 많이 첨부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의예과 생활이 더 나아져야하는데 이 때까지는 다른 게 없더군요. 물론 이 새터 자료집을 받자마자 필요없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군요. 아마도 이 자료를 버리시면 후회할 것입니다.(라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적어도 1학기 동안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선배들은 1년 아니면 더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모르더라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의예과 생활의 행운을 빕니다.

- 새터 자료집 편집 및 작성자
성 민 동/MDskylover@gmail.com

갑자기 feel(?)이 충만해서 새터 자료집을 샤방샤방하게 꾸며보고자 신준위에 자원했습니다. 엊그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감일 임박해 타면서 자료집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나름 생각도 많고 담고 싶은 것들도 많았지만 방학 내내 놀다가 시간에 쫓겨 좀 더 멋진 자료들로 채우지 못해 아쉬워요-*
끊임없는 마감 독촉에도 짜증 안 내고 멋진 글을 써 준 08학번 글 써준 동기들! 샤방하고 따끈한 글들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 08학번 알라뷰 >_<! 무엇보다 멋진 재료들로 맛깔스런 요리를 탄생시켜준 민동이가 제일 고마워요^^
새터 자료집은 모든 걸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선배들은 **충만한 개념**을 들고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선배님들께 **먼저 연락해서** 밥도 얻어먹고 동아리 소개도 들으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슈퍼초그레이트울트라 막강 연세대학교 의예과 09학번 파이팅~!

아... 나도 할 말 엄청 많은데 다 못 쓰겠다... -_-;

– 새터 자료집 편집자 및 작성자

전 병 남

09학번들에게 하는 선배들의 한마디

안성재 안녕하세요 저 소개팅시켜주세요^.^ (09.01.29 23:13)
↳ 김응남 아진짜...-ㅁ- (09.01.29 23:28)

정현교 '내가 아웃싸이더다' 느낌이 오는 순간 연락하세요^*^ (09.01.29 23:31)
↳ 변화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9.02.01 12:44)
↳ 정현교 흑.. (09.02.01 21:46)

김응남 심심하면 안성재 부르세요^^ (09.01.29 23:32)

고희동 학고를 세번맞으면 퇴학당한데요. (09.01.30 00:08)

이정우 연락하면 술사드립니다 (09.01.30 01:51)

홍준호 흐헝헝 보람차게 사세요 (09.01.30 16:49)
↳ 김태환 와닿는다 (09.01.30 17:36)
↳ 김응남 진심... (09.02.01 01:01)

백승호 기숙사 들어오면 스쿠터 사세요. (09.01.30 17:14)

이준협 여러분...안생겨요 (09.01.31 22:21)
↳ 안성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감 역시 센스쟁이 (09.02.01 20:54)
↳ 정현교 ...아멘 (09.02.01 21:46)

08학번 선배들이 말하는 팁

김응남 우리은행 atm위치 : 공학원 지하, 과학관YCV앞, 과학원1층, 백양관1층, 제중관 꽃집쪽입구, 세브란스병원, 공학관 C 지하, 학관 1층..저만의 팁은 아닌데요ㅋㅋㅋㅋ (09.01.20 18:53)
↳ 안성재 오.......쩔어 ㅋㅋㅋㅋㅋㅋ (09.01.23 13:40)

김응남 세브란스 병원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ㅋㅋㅋㅋㅋㅋ (09.01.20 18:56)
↳ 전병남 요런거 좋아 +_+! ㅎㅎㅎㅎㅎ (09.01.20 21:30)
↳ 고희동 컵라면과 껌도 팔지 않는다! (09.01.21 14:43)

홍준호 상경대는 경복궁역에서 택시요금 3000원? (09.01.20 22:48)

이정우 글쓰기는 송은영 교수님을 듣지 마세요. (09.01.20 23:02)

김응남 서문당구장 10분 1000원 제우스 마일리지 대략 5% 적립 (09.01.21 00:10)

김보람 서철사 듣지마세요 ㅋㅋㅋ (09.01.21 01:10)

김보람 만남은 독수리 빌딩에서 ㅋㅋㅋ (09.01.21 01:10)

이홍선 공부 열심히 하세요~^^ (09.01.21 15:53)

김현수 본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09.01.22 00:43)

안성재 의대 종합관의 밥이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다는것 (09.01.22 00:43)

안성재 08학번 전병남 군이 가장 키도 크고 가장 잘생기고 그 다음은 안성재라는것 (09.01.22 00:44)
↳ 김응남 또 술먹었냐 (09.01.22 11:23)
↳ 전병남 히히히 -_-v (09.01.22 22:38)

김현수 셔틀버스 시간표같은거.;;; (09.01.22 00:44)
↳ 전병남 오케이! 근데 시간표 전체를 박는다기보다는 어디있다~ 정도로 해두는 것도 좋을거 같아! 여튼 고마워!! ㅋ (09.01.22 22:41)

안성재 아 그나저나 제가 열심히 만든거는 제이를 올려주시죠? 그때 메일로드린거 ? ㅋㅋㅋ (09.01.22 00:46)
↳ 전병남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당연당연 안성재 이름 당당히 박아줌 ㅋㅋㅋ (09.01.22 22:37)

백승호 글쓰기 송은영 강추. (09.01.23 00:35)
↳ 김응남 기각인거 알죠^^? (09.01.23 14:06)